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04호 【루계 제26178호】 주체107(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올해전투목표점령을 위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 앞으로!

위력한 사상공세로 증산돌격운동을 적극 추동

량강도안의 당조직들에서

량강도당위원회와 도안의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추동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우리앞에 어려운 혁명과업이 나설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력사와 혁명업적, 고매한 령도풍모를 대중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최우선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큰 힘을 넣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도당위원회일군을 책임자로 하고 도급기관 강연강사들을 망라시킨 집중강연선전대를 뭇고 그들이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을 비롯한 도안의 건설장들과 혜산시안의 동, 인민반들에 달려나가 혁명전통교양사업을 박력있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또한 도당위원회에서는 강연강사들이 해설문을 잘 만들도록 하는 한편 강의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그들이 진행하는 강의가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는 좋은 계기로 되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 담당지도원들은 자기들이 맡은 단위의 당조직들이 혁명전통교양주제의 직관판들을 잘 게시해놓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당적지도를 짜고들고있다.

이 나날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체질화한 투사들의 전위대오가 점점 늘어나고있으며 도안의 수많은 단위들에서는 례년에 찾아볼수 없던 높은 생산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도안의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의 강자, 견결한 혁명가들로 키우기 위한 혁명전통교양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좋은 결실을 안아오고있다.

삼지연군당위원회에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솟아있고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이 많은 군의 특성에 맞게 답사와 참관을 통한 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돌리고있다.

해마다 군급기관 일군들과 군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백두산과 백두산밀영고향집, 사자봉밀영과 청봉숙영지를 비롯한 혁명전적지들과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와 참관사업을 수차에 걸쳐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고있다.

또한 군안의 강사들이 중흥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농장들과 10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면서 대중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이동강의활동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군안의 전체 인민들은 삼지연군을 로동당시대의 희한한 산간문화도시로 훌륭히 꾸리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웅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는데서 전위투사가 될 불같은 결의밑에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혜산시당위원회에서도 대중을 혁명적신념을 굳게 간직한 불굴의 투사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힘차게 전개해나가고있다.

당위원회일군들은 농장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대성선전도 하고 혁명일화들도 이야기해주면서 대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또한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도혁명사적관참관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직외강연강사, 공로자강연강사들을 주 2차이상 해당 단위들에 내보내여 대중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대성과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고있다.

혁명의 대가 바뀌여 새 세대들이 혁명의 주력으로 등장하고있는 오늘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한 김정숙군당위원회 일군들도 혁명전통교양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혁명사적지구역을 새롭게 일신시킨데 맞게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고있으며 도안의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의의있게 조직하고있다.

답사과정에 《적기가》,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비롯한 혁명가요들과 혁명적인 노래들을 가지고 단위별대렬합창경연도 조직하고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 대한 문답식학습경연도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그 과정에 군안의 인민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새긴 백절불굴의 투사들로 튼튼히 준비해나가고있으며 이것은 곧 단위의 비약적발전으로 이어지고있다.

이밖에도 도안의 여러 군당위원회들에서 전체 인민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와 도안의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벌리고있는 힘있는 사상공세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커다란 원동력으로 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허일무

20만산대발파 진행, 1차 물막이공사 힘있게 추진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떨쳐나선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간석지건설자들이 지난 28일 접도에서 2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1호제방 1차물막이공사를 앞당겨 끝낼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간석지개간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부침땅을 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종합기업소의 일군들은 1차물막이공사를 밀고나가면서 20만산대발파준비를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화공품, 륜전설비부속품, 자동차와 굴착기 등을 제때에 보장해주었다.

대발파준비를 맡은 다사간석지건설분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앞선 굴진방법을 받아들이면서 도갱굴진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갔다.

이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돌파구를 열어나감으로써 짧은 기간에 수십m의 도갱을 뚫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종합기업소에서는 지난 28일 접도에서 2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종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대발파를 성공시킨 기세드높이 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2단계 1호제방 1차물막이를 결속하기 위한 총공격전에로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여러곳에서 공사가 벌어지는 조건에 맞게 전투조직을 능동적으로 짜고들면서 모든 시공단위들에서 매일 맡은 공사과제를 수행하도록 총화와 평가사업을 따라세우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종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정치사업무대를 들끓는 전투장으로 옮기고 대중의 정신력을 힘있게 발동하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대발파가 진행된 접도지구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장송, 다사, 보산간석지건설분사업소, 선박분사업소와 다사기계화분사업소의 전투원들은 개펄구간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합리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안산지구의 대삼곶도에서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돌격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접도방향의 1호제방 1차물막이공사를 맡은 석화, 곽산, 로하간석지건설분사업소, 청강기계화분사업소, 신의주간석지부재분공장의 전투원들은 수천m의 제방을 쌓은 기세로 여러가지 합리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이고 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공격속도를 높여나가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려는 불같은 열의밑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간석지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홍건도전역에서는 날에날마다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특파기자

과일가공기지건축공사 마감단계

618건설돌격대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고산땅에 일떠세우는 현대적인 과일가공기지의 건축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 생산한 과일로 여러가지 가공품을 만들어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수천㎡의 건축면적을 가진 과일가공기지를 하루빨리 건설할 열의밑에 세찬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그리하여 여러 건물들의 외부벽체타일붙이기를 끝낸데 이어 내부공사를 다그치고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전에로 대중을 고무추동하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첨입식으로 들이대면서 공사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하고있다.

각 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면서 공사를 본때있게 내밀고있다.

평양시려단에서 집단적혁신창조의 열풍이 몰아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자체로 중기계들을 해결하여 보조생산건물들의 골조공사와 구획정리를 립체전의 방법으로 해제낀 기세로 내부공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평안남도려단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려단에서는 시공을 전문화할데 대한 당의 건설정책을 관철하여 공사속도와 질을 높이면서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함경남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로력이 긴장한 속에서도 설비와 기공구준비를 잘 갖추고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해 완강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이 준 과업을 무조건 수행하는데 가장 큰 영예와 보람이 있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공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증송투쟁의 불길높이

개천기관차대에서

개천기관차대의 수송전사들이 지난 25일까지 년간 화물수송계획을 1.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기관차대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년초부터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왔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사상의 포문을 열고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무엇보다도 기관차승무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다양하게 조직진행하여 그들이 기관차의 기술상태와 운행구간을 환히 꿰들고 어떤 정황에서도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기관차수리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어 실동기대수를 늘여나갔다.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일터마다에 휘몰아치는 가운데 집단적혁신이 창조되였다.

운전대대안의 승무원들은 무사고주행을 보장하기 위한 증송경쟁을 활발히 벌리며 매일 높은 수송실적을 기록하였다.

《붉은기》5196호의 승무원들은 자검자수를 책임적으로 하고 철길상태에 따르는 합리적인 운전조작법을 적극 받아들여 기관차대적으로 제일먼저 년간수송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이에 뒤질세라 《붉은기》5065호와 《붉은기》5362호의 승무원들도 자체로 예비부속품을 마련해놓고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수송실적을 부쩍 높이였다.

수리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증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기관차수리시간을 단축하여 년간계획수행에 한몫 하였다. 특히 이들은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여러가지 공구, 지구들을 창안제작하여 수리기일을 종전에 비하여 훨씬 줄이였다.

본사기자 김국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 사리원방직공장에서 —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더 많은 전력을

올해 전력생산계획 빛나게 초과완수

서두수발전소에서

북방의 대규모전력생산기지 서두수발전소에서 전력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드높이 힘찬 전투를 벌려 지난 15일까지 년간 전력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발전설비와 구조물보수를 질적으로 하고 기술개조를 다그쳐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높은 전력생산성과로 령도업적단위의 영예를 빛내일 불타는 열의밑에 힘찬 전투를 벌리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발전소당조직에서는 전력증산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발전소일군들은 언제들의 수위와 류입량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발전소들호상간 출력분배를 합리적으로 정하였다. 또한 자체의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렸다.

전력공업성의 기술집단이 발전소의 기술개건사업을 적극 도와주었다.

과학기술열풍이 일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가치있는 기술혁신안, 창의고안들이 수많이 창안도입되여 전력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전력생산의 기본몫을 맡아안은 서두수2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전력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였다.

이들은 발전기들의 운영기일을 늘이는데 전력증산의 기본담보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발전설비들의 불량개소들을 미리 찾아내여 퇴치하였다.

또한 발전기보수에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보장을 앞세워 전력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서두수1호, 3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당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를 안고 말겨진 전력생산계획을 매일 110%로 넘쳐 수행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순회감시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자체로 차단기의 기술개건을 진행하여 발전기들을 정상운영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또한 설비점검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발전기들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였다.

신양양수직장과 무봉양수장, 대홍단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한방울의 물도 허실함이 없이 전력생산에 리용하였으며 양수기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하였다.

물조절을 과학적으로 잘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겨안은 구조물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구조물보수공사를 질적으로 하였으며 전기기계직장에서는 부족되는 부속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발전기들의 대보수기일을 앞당기였다.

발전소기술집단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탐구도입하고 여러 종류의 부속품들을 자체로 해결하여 전력증산에 이바지하였다.

서두수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년간계획을 초과완수한 기세드높이 전력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수천만kWh의 전력 증산

순천화력발전소에서

순천화력발전소에서 증산돌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계획보다 5 000여만kWh의 전력을 더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 1단계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고 앞선 단위의 영예를 지닌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공격속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매일 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증산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전력증산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박력있게 진행하고있다.

특히 사회주의경쟁을 방법론있게 조직하고 총화와 평가사업을 따라세우면서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발전소의 전투현장마다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이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이곳 로동계급은 보이라들의 정상운영을 위해 보수시간을 종전보다 훨씬 단축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이들은 종전같으면 며칠이상 걸려야 할 1호보이라보수를 단 10시간동안에 해제끼고 4호보이라의 절탄기보수는 24시간이나 앞당겨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전력생산의 선행공정인 하차와 운탄공정에서도 집단적혁신이 일어나 석탄부림시간이 종전보다 줄어들고 하차기들의 주행능력이 높아졌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발전설비들의 효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급수뽐프의 랭각계통이 개조되여 보이라와 타빈의 운영조건이 훨씬 개선되였다. 송풍기날개도 합리적으로 개조된 결과 증기생산을 늘일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였다.

발전소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도 가치있는 수십건의 기술혁신안들을 내놓아 전력생산을 늘이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이들은 모든 보이라들에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화실의 온도를 종전보다 높이고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증기를 생산할수 있게 하고있다.

또한 자력갱생직장의 주물공정에 중주파유도로를 짧은 기간에 제작설치하여 보수용자재들의 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도 열어놓았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순천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전력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윤금찬

년간 발전기대보수 결속

허천강발전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허천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년간발전기대보수 및 수력구조물보수과제를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소들의 불비한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정비보강하고 기술개건을 다그쳐 발전설비의 효률을 높이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전력생산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생산자대중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대보수전투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참모부의 일군들은 자체의 기술력량과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설비리용과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대보수를 질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사업에 드센 박차를 가하였다.

발전기대보수에 떨쳐나선 전기기계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과학기술을 비약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전투장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이들은 4호와 1호, 3호발전소의 로동자들과 힘을 합쳐 설비해체와 정비보수, 조립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매일 맡은 과제를 1.1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였다.

특히 2호발전소의 발전기대보수와 새형의 수차도입을 동시에 내밀어 종전보다 수차효률을 더욱 높임으로써 같은 량의 물을 가지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와 함께 해당 단위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합심하여 여러대의 변압기대보수과제도 질적으로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력구조물보수에서도 자랑찬 로력적위훈이 창조되였다.

언제보수직장과 수력구조물직장, 언제관리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언제보강타입과 시추주입, 도중취수구를 비롯한 여러 대상의 구조물보수과제를 기한전에 질적으로 끝내였다.

년간 발전기대보수 및 수력구조물보수를 빛나게 결속한데 맞게 발전소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더욱 짜고들고 높은 효률운전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10월 전력생산계획도 앞당겨 완수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지금 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증산돌격운동의 불길높이 년간 전력생산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시대의 기념비적대걸작과 더불어 불멸할 이야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깃든 위대한 령도의 나날을 더듬으며

무수한 별들로 가득찬 우주의 한복판에 새로운 《별의 세계》가 펼쳐졌다. 이 땅의 수많은 눈길들이 황홀감에 휩싸여 그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름처럼 심장으로 불러본다.

《빛나는 조국》,

백수십대의 무인기들로 하늘에 새긴 이 글발은 마치도 인류사상 처음으로 발견된 별자리이런듯 세계의 이목을 끌고있다. 이 글발과 더불어 5월1일경기장에 펼쳐진 아름다운 꽃바다는 마치도 하나의 거대한 불덩어리마냥 행성을 끓게 한다.

《주체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세계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렇듯 규모가 큰 예술작품을 수많은 출연자들이 하나같이 보조를 맞추며 째인 형상으로 완벽하게 펼쳐보일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조선밖에 없다.》, 《세상에 이런 예술작품이 있다는것 자체가 인간세계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

류례없는 관람의 열과가 평양으로, 평양으로 밀려들고있다.

지난 9월 첫막을 올린 때로부터 수십일째 공연이 계속되고있는 속에 국내외의 관람자수는 날이 감에 따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다.

어느덧 시원한 가을의 향취도 사라졌건만 날마다 경기장이 떠나갈듯 터져오르는 열광의 박수, 가슴벅찬 환호속에 공연의 관람열기는 더더욱 뜨겁게 달아오른다. 한번으로는 도저히 성차지 않아 두번, 세번을 다시 보는 공연, 그렇게 보고도 떠나는 걸음이 아쉬운듯 5월1일경기장을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또 얼마이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은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보여줄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세계를 진감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은 명실공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마련된 시대의 기념비적대걸작이며 그이의 열화와도 같은 조국애, 그 누구도 따라설수 없는 천재적예지가 빛발치는 조국찬가라고 해야 할것이다.

돌이켜보면 유럽에서 처음으로 일명 《마스겜》으로 불리우는 집단체조가 발생한 때로부터 백수십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체조대형의 일치성과 조화성보다도 개인적기교를 보여주는 인기주의적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나니 오랜 세월 흥미본위의 체육형식으로밖에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집단체조를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수단, 조국과 민족의 기상을 떨치며 청소년학생들의 체력단련과 사상정신적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혁명적인 집단체조로, 인류체육문화의 본보기로 발전시켜주신분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 카륜의 진명학교에서 《꽃체조》를 창작지도하시여 혁명적집단체조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집단체조가 자기의 면모를 뚜렷이 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주체36 (1947)년 5월 1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집단체조 **《김일성장군 만세!》**가 진행되여 온 나라 인민을 격동시켰으며 전쟁의 포성이 울부짖던 그때에도 우리의 집단체조는 자기의 아름답고 씩씩한 모습을 펼쳐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벅찬 투쟁과 사회주의제도의 수립과 더불어 집단주의정신이 온 나라 인민의 생활과 투쟁속에 차넘치던 1950년대에 우리 나라의 집단체조는 처음으로 체조대와 함께 배경대를 배합함으로써 자기의 면모를 더 훌륭히 갖출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식 집단체조의 새 전성기를 열어놓으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 경축 집단체조 《로동당시대》창조사업을 친두지휘하시였으며 이때부터 조선의 집단체조는 보다 눈부신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수도 평양은 물론 여러 지방들에서 집단체조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쳐 번영하는 조국의 모습을 노래하였으며 지어는 일본땅 한복판에서까지 《조국에 드리는 노래》,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과 같은 재일조선인학생들의 집단체조가 진행되여 세상을 놀래웠다. 또한 우리 식 집단체조는 세계의 40여개 나라들에서 100여차에 걸쳐 창작보급됨으로써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쳤다.

언제인가 집단체조를 보시고 전설에는 금강산에 팔선녀가 내렸다고 하지만 자신께서는 오늘 평양체육관에서 만선녀를 보았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그 영상, 이제는 우리 나라가 집단체조에서 세계적으로 패권을 잡았다고 하시던 장군님의 그 교시와 더불어 우리의 집단체조는 조선의 자랑, 인류문화의 재보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을 이겨낸 우리 조국이 승리의 개가 높이 부르던 격동의 2000년,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10월에 인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라는 신비로운 체육예술의 세계를 목격하였다.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라는 성대한 축전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90돐이 되는 2002년에는 10만명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창조하도록 하시여 승리에서 보다 큰 승리에로 전진하는 조선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할수 있게 하시였다.

그때로부터 10여년세월이 지난 오늘날 또다시 전세계를 조선열풍으로 끓어번지게 하는 《빛나는 조국》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태여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으로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별마냥 세기의 하늘가에 불멸의 빛을 뿌리는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재부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의 사회주의국가를 세계가 우러르는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고 자기 국가의 일흔번째 창건일을 맞이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세계에 소리높이 구가하고싶은 인민의 열망을 뜨겁게 헤아려보신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이시였다.

온 나라 인민이 력사적인 새해신년사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고 격정에 설레이던 지난 1월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진행할것을 몸소 발기하시였다.

아마도 우리 조국이 걸어온 70년의 자욱자욱과 이룩한 모든 승리를 펼쳐보이는데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만큼 거대한 폭과 깊이를 가진것은 없을것이다.

여전히 9월의 환희를 안고 날마다 터져오르는 축포며 밤하늘을 밝히는 《빛나는 조국》이라는 황홀한 별무리와 더불어 세계의 눈길과 걸음이 더욱 강렬하게 모여드는 10월의 평양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창조하기로 한 우리 당의 결심이 얼마나 현명하고 정확했는가를 다시금 새겨보게 한다.

위대한 예술의 힘은 비할바없이 강하다. 수만명의 출연자들이 하나의 숨결로 고동치고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경으로 가득찬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말그대로 공화국의 정치사상적위력의 일대 과시로 된다.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창조해본 례가 없으며 수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보폭을 하나로 맞추어낸 나라는 더우기 없다.

어머니조국의 뜻깊은 창건일에 또다시 펼쳐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식의 대집단체조와 주체예술의 거대한 화폭으로 공화국의 국력과 정치사상적위력을 만방에 과시하시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창조를 위한 강력한 창작력량을 꾸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총설계가, 총지휘자, 총연출가가 되시여 창조의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창작의 첫 공정으로 되는 문학대본과 장, 경들의 설정, 음악의 선곡과 편곡, 배경대형상과 바닥형상은 물론 3차원화상처리와 무인기에 의한 각종 형상들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도해주시였으며 창조과정에 제기되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풀어주시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우리 조국의 위력을 과시하는 대표작으로 빛내여주시려고 바쳐오신 절세위인의 로고와 심혈이 우리의 마음을 적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지어주신 《빛나는 조국》이라는 그 제명만 안아보아도 경건해지는 심정을 금할수 없다.

《빛나는 조국》,

여기에는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70년 력사가 응축되여있으며 새롭게 탄생한 조국의 모습이 있다.

공화국이 걸어온 70년을 돌이켜볼 때 인민의 가슴속에 가장 사무치게 안겨오는것은 아마도 《빛》일것이다.

한세기전만 해도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이였다. 70년전 9월에 그 빛을 되찾은 우리 조국이 7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의 한복판에서 눈부신 빛을 뿌리고있으니 그 빛은 바로 무진막강한 조선의 힘이고 긍지높은 인민의 삶이며 세계가 우러르는 강국의 존엄이다.

《빛나는 조국》, 정녕 그것은 위대한 애국자, 걸출한 혁명의 령도자만이 내놓을수 있는것이며 우리 조국이 올라선 승리와 영광의 눈부신 절정우에 경애하는 원수님 새겨주신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국호와도 같은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맞이하던 10여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근 한세기를 포괄하는 우리 민족의 운명사를 《아리랑》이라는 제명속에 담게 해주셨듯이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빛나는 조국》이라는 뜻깊은 제명으로 반만년력사에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선 조국의 모습을 구가하도록 하시였다.

이렇듯 《빛나는 조국》이라는 철학적인 제명으로 작품의 종자와 창조방향을 제시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창조에서 근본열쇠로 되는 원칙적문제들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방대한 규모의 인원과 설비들이 동원되고 음악, 무용, 미술, 조명 등 다채로운 예술형식과 수단들이 포함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 있어서 작품이 그 어떤 편향이나 오유가 없이 창조되도록 뚜렷한 방향과 옳바른 원칙을 세우는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창작초기부터 이번 공연을 세계적수준의 대걸작으로 만들겠다는 열의로 충만된 창작가들은 형상창조전반에서 현대적인 설비들에 의한 효과에 치중하였으며 또 그렇게 해야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따라설수 있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창작가들이 3차원화상처리와 조명의 기술적효과에 많이 의존하고있다는것을 헤아려보시고 그들에게 공연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서는 조직성과 규률성이 생명이라고, 우리의 현실에 발을 붙이고 우리의 사상문화, 예술의 발전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순간 창작가들은 눈앞이 삽시에 밝아지는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다.

현대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규모의 야외예술공연들에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환상적인 영상들과 신비로운 조명효과로 드넓은 공간을 가득 채우는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다. 이러한 발전추세에 따라서야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설수 있다는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굳어지고있을 때 현대과학기술도 우리의 일심단결과 합쳐져야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발휘한다는것을 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세계가 경탄하는 최고의 걸작으로 내세울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힌 고귀한 지침으로 되였다.

제한된 시공간속에 미증유의 사변과 기적들로 가득찬 공화국의 발전행로가 완벽하게 반영되게 된것도 공연에서 공화국의 70년 력사를 집약화하면서도 진실하고 풍부하게 형상하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원수님의 예지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원래 창작가들은 우리 조국이 이겨낸 시련과 난관들을 주제화하여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형상한 경이 나온 다음에 고난의 행군시기를 반영한 경이 련이어 펼쳐지도록 하였다.

그것이 안고있는 부족점을 간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영웅적인 전후복구건설과 세상을 놀래운 천리마시대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혁명의 년대기마다 기적적승리를 이룩한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가운데서 보여줄것은 다 보여주도록 하시였다. 또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빠짐없이 펼쳐보이며 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가 좌절과 진통을 겪던 시기를 보여준 다음 고난의 행군을 반영한 경인 《위대한 수호자》를 련결함으로써 력사적인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배경대를 비롯한 여러 형상수단들을 통하여 방대한 력사적화폭을 집약적으로 반영할수 있는 방도들을 일일이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정책적내용들도 정확히 반영하여 공연이 하나의 훌륭한 당정책교과서가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날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명철하였는가를 후날 창작가들은 공연창조의 실천속에서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우리 조국의 어제와 오늘을 보았다.》, 《5월1일경기장은 우리 당과 조국의 력사를 가르쳐주는 거대한 교정이다.》, 《조선을 알려면 〈빛나는 조국〉을 보아야 한다.》…

관중들의 격정에 넘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거창한 력사적화폭을 다 담을수 있는 방도들을 한순간에 명쾌하게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영상이 어려와 못 잊을 추억에 가슴설레인다는 창작가들의 이야기를 어찌 한두마디로 다 전할수 있으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고 격동과 환희의 무아경으로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새롭고도 감명깊은 구성형식도 우리 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속에 완성될수 있었다.

지난 시기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 대규모의 경축행사들인 경우 시작부분에서 봉화대에 불을 지펴올리는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여왔다. 창작가들이 기성관례대로 봉화대에 불을 지피는 의식을 어떻게 형상할것인가를 고심하고있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대안을 안겨주시였다. 공연시작을 봉화대에 불을 지피는것보다 국기게양의식을 하는것으로 하여야 공화국창건 70돐을 경축하는 체육문화행사의 의의와 멋이 더 살아날것이라고, 공화국기를 게양하면서 《애국가》를 주악하면 전체 관람자들이 일어서서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공화국기를 바라보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국기게양의식을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할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자자구구 새겨안는 창작가들의 심장속에 이름할수 없는 환희와 격정이 끓어올랐다. 어둠을 밀어내며 아침해마냥 서서히 떠오르는 공화국기발, 경건한 눈길로 람홍색국기를 우러르는 관람자들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았다.

국기게양의식, 정녕 그것은 언제나 《애국가》의 선률을 심장으로 부르시며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빛내일 열망으로 가슴끓이시는 절세의 위인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위대한 발견이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펼쳐주신 창조의 세계는 그뿐이 아니였다. 제1장 제3경 《전쟁의 3년간》도 처음에는 인민군대복장을 한 출연자들의 군상무용으로만 형상되여있다나니 전쟁의 시대상이 폭넓게 반영되지 못하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군자리로동계급과 남강마을녀성들, 소년빨찌산대원들을 비롯한 후방인민들의 투쟁모습을 함께 형상함으로써 수령의 령도따라 전민항전의 위력으로 안아온 전승의 본질을 똑똑히 보여줄수 있었다.

건설의 대번영기를 형상한 경도 새로 내오도록 하시여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비약하는 시대의 숨결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연에서 우리 당의 자위적인 군사로선을 잘 반영하도록 구체적인 형상안들과 대책들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대로 군사적위력을 보여주는 장면을 창조하면서 제일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다름아닌 창작가들자신이였다. 드넓은 경기장을 주름잡는 대규모의 군악례식이며 눈부신 백광을 뿌리는 녀성군도수들의 기백있고 매력적인 률동, 일당백의 기상떨치는 인민군군인들의 용맹스런 모습… 마치도 성대한 열병식장을 그대로 경기장에 옮겨온듯 한 환희를 불러일으켰으며 그런것으로 하여 그 장면은 관중들로부터 가장 큰 절찬을 받는 명화폭으로 될수 있었던것이다.

대규모의 예술공연에서 음악형상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조국해방전쟁승리를 보여주는 장에서 9대의 피아노로 《결전의 길로》만을 연주할것이 아니라 《내 고향의 정든 집》, 《전호속의 나의 노래》, 《우리는 승리했네》와 같은 전시가요를 형상하여 전쟁의 승리를 안아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세계를 깊이있게 그릴데 대해서도 가르쳐주시고 어린이장에서는 우리 인민들과 학생들이 즐겨부르는 노래들인 《장군님과 아이들》, 《사랑의 왕차》를 더 넣어 후대들을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력사와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상이 더욱 생동하게 펼쳐지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같은 노래를 통해서도 겨레의 통일열망을 뜨겁게 구가할수 있도록 해주시였다.

나라의 관록있는 창작가, 지휘자들을 불러주시여 공연의 음악형상 특히 전반적인 편곡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대책도 일일이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공연은 음악예술적으로도 완벽한 경지에 도달할수 있었다.

경기장바닥을 종횡무진하는 체조대가 내뿜는 거세찬 열기에 끓어오르던 심장들이 구름우를 날아예는것만 같은 아름다운 노래와 더불어 자기도 모르게 그윽한 정서에 잠겨들게 하는 독특한 감흥은 아마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만이 가질수 있는 매력으로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씩씩하고 기백넘친 집단체조와 황홀하고 우아한 예술공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공연의 성격과 감화력이 더욱 뚜렷이 살아나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우리 식 집단체조의 고유한 특징인 조직성과 규률성을 더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 우리 인민의 정신력과 단결력을 과시하게 될 집단체조의 면모를 뚜렷이 살리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예술공연종목을 더 내놓으며 관록있는 예술단의 명배우들도 더 출연시키는것을 비롯하여 공연의 예술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도 세워주시였다.

황금벌의 새 력사를 노래하는 장에서 민족적향취가 넘쳐나도록 민족악기를 적극 살려쓰며 어린이장의 무용형상을 통심에 맞게 더욱 세련시키는 문제, 조국통일장에서 민족사에 길이 남을 력사적화폭을 배경대에 생동하게 재현하며 국제친선장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노래들을 해당나라의 색채가 잘 살아나도록 형상하기 위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과 경들의 형상방도를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식 집단체조의 얼굴이며 크나큰 자랑이기도 한 배경대는 수십년에 달하는 오랜 세월 우리 나라 집단체조의 중요구성부분의 하나로서 특출한 지위를 차지하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하여왔다.

주체53 (1964)년 5월 강계에서 진행된 집단체조 《장자강반의 새 노래》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배경대에 정중히 모신것은 우리 식 집단체조가 혁명적수령관을 구현하는데서 특기할 사변으로 되였다.

수많은 출연자들이 하나의 숨결로 호흡하며 천변만화의 신비경을 펼쳐온 우리의 배경대는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령도아래 창조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들과 더불어 대형화, 상징화, 률동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세계최고급의 배경대로 자기의 위력과 명성을 남김없이 떨치게 되였다.

우리 나라 집단체조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배경대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짧은 시일안에 1만 7,490여명을 수용할수 있는 특대형배경석을 건설하기 위한 강력한 건설력량을 무어주시고 공사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주시였으며 배경대에 새겨지는 하나하나의 글발들에도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과 우리 국가의 눈부신 발전상이 그대로 비끼도록 보살펴주시였다.

이번에 배경대를 도입하기 정말 잘하였다고, 배경대야말로 우리 식이고 조선의 특색이고 위력이라시며 이전에는 공연시작전에 진행하던 배경대위력시위도 공연의 한부분이 되도록 해주신 다심한 그 지도를 받으며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가슴후덥게 새겨안은것은 무엇이던가. 그것은 어버이장군님의 심혈이 깃들어있고 우리 청소년학생들의 불같은 충정의 마음이 어려있는 우리 식 배경대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사랑이였고 크나큰 믿음이였으니 그 사랑, 그 믿음이 있어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일심일체의 대서사시적화폭이 펼쳐질수 있었던것이다.

무인기활용과 3차원화상처리, 출연자들의 의상과 기재, 음향조건과 설비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적이고 구체적인 지도를 받으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은 시대의 명작으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출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새롭게 설정된 경들은 물론 하나의 자그마한 세부만 보충하여도 공연의 전반형상이 놀랄만큼 달라지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가슴벅차게 절감한것은 무엇이던가. 잊지 못할 영광의 나날을 돌이켜보며 공연의 연출을 담당했던 어느 한 창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공연을 관람한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 공연의 총지휘자야말로 천재중의 천재라면서 그가 누구인가고 묻군 합니다.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내는 신비로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경지를 열어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빛나는 조국〉은 우리 원수님의 친작입니다.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뜻과 천재적예지로 빛나는 조선의 국보입니다.》

정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은 우리 원수님의 불같은 조국애와 지칠줄 모르는 열정,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빛나는 예지가 안아올린 세계최고의 작품,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대걸작이다.

승리와 영광의 상상봉에 오른 우리 조국의 모습을 세계앞에 더욱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빛내이실 일념을 안으시고 우리 원수님 바치신 로고는 그 얼마이던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창조사업을 중대한 국가적사업으로 여기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길지 않은 나날에 여러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여 공연을 지도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령도는 전체 창작가들과 출연자들을 기적창조에로 떠미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아마도 우리 조국력사에서 이번처럼 방대한 규모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그렇듯 짧은 기간에 창작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려울것이다. 창조집단은 문학대본과 체조와 무용, 배경대의 숙련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상창조사업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여 우리 인민의 우수한 창조력을 잘 보여주었다. 3차원화상제작을 맡은 창작가들은 남들같으면 1년이상 걸린다는 형상작업을 불과 한달 지어 며칠동안에 끝내여 사람들을 놀래웠으며 우리 나라 예술공연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백수십대의 무인기들의 비행조종프로그람도 자체의 힘과 지혜로 완성하였다. 아침에 문학대본과 연출 등 수정작업이 진행되면 점심부터는 매개 장과 경들의 형상작업이 진행되고 저녁에는 관통훈련이 성과적으로 보장되는 놀라운 속도가 창조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에 나오시여 공연을 지도하신 때로부터 불과 며칠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공연이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일신하고 오늘과 같은 풍격을 갖추게 되였다는 놀라운 사실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신념과 의지를 체질화, 생활화한 우리 인민의 정신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보여주고있다.

공연을 통하여 펼쳐지는 대서사시적화폭이 예술의 기적이라면 하나의 뜻과 마음, 하나의 숨결과 보폭으로 세계최고의 걸작을 안아올린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조선의 기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쏟아지는 폭우에 온몸이 젖으면서도 비옷으로 배경책부터 감싸안던 나어린 학생들이며 삼복의 폭염에 온몸을 땀으로 적시면서도 훈련장을 떠나지 않은 처녀들, 우리 조국의 모습을 세상에 보란듯이 펼쳐달라며 아낌없는 지성을 기울인 전국각지의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몇명의 사람들을 한줄로 맞춰세우자고 해도 돈을 줘야 하는 세계에서는 리해할래야 리해할수 없는 이 아름다움은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고 현대과학의 힘으로도 만들어낼수 없는 조선의 참모습이다.

그 기적의 원천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였다. 그것은 숨막힐듯 한 무더위와 때없이 쏟아지는 폭우속에서도 오직 원수님을 모실 영광의 그날만을 그리며 충정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전체 일군들과 창작가들, 출연자들의 가슴마다에 지칠줄 모르는 힘이 되고 정열이 되였다.

9월 9일을 며칠 앞둔 어느날 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창조사업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또다시 현지에 나오셨다는 소식에 접하자 퇴근길에 올랐던 수만명의 출연자들이 밤길을 달려 5월1일경기장으로 모여들었던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비록 주석단에서 멀리 떨어진 배경대 한끝에 있어도 우리 원수님께서 보아주신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으로도 너무도 행복하여 목메여 환호를 터치던 애어린 심장들에서 솟구치던 눈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세계에 둘도 없는 대걸작을 안아올린 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말해준다.

어느 나라에서나 력사에 남을 기념일들을 예술행사로 경축하는것은 그것이 곧 나라의 얼굴이며 존엄과 국력의 과시로 되기때문이다.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체육축전들이나 국경절기념행사들을 통하여 자기 국가와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세계앞에 보여주기 위해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아낌없이 쏟아붓고있으며 지어는 외국의 명성높은 연출가들을 초빙하여 자기의 예술공연을 준비하는 나라들도 있다.

남들은 엄두도 못내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창조사업을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대성공에로 이끈 우리 당의 령도는 억대의 자금이나 외부의 방조가 아닌 인민의 슬기와 재능, 정신력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이며 세계를 놀래우는 대걸작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힘이 안아올린 기적이다.

바로 이런것으로 하여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은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국보적인 명작인 동시에 우리 당과 인민이 세계가 보란듯이 쌓아올린 일심단결의 기념비로 되는것이다.

* *

《세인을 경탄시키는 명작중의 명작을 창조하도록 지도하여주신 **김정은**각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싶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한 외국인의 심장에서 울려나온 이 목소리에는 인류사에 특기할 기념비적대걸작을 창조하시여 조선의 모습, 조선의 존엄을 누리에 빛내여주신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심이 깃들어있다.

세계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서 새롭게 탄생한 위대한 조선의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제명그대로 세계에 찬연한 빛을 뿌리는 조선의 모습이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보면서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치신대로만 하면 예술만이 아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을 마음먹은대로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였으며 우리 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갈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창조과정을 통하여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는 예술창조력량이 더욱 장성하였으며 인민자신이 사회주의문명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도록 이끌어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발휘되였다.

당의 결심은 곧 우리의 실천이라는것을 체질화한 우리 인민의 단결력과 조직력은 더욱 굳건해졌으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가 제일이라는 크나큰 자부심과 위대한 조국을 더욱 빛내이려는 애국의 열망이 전인민적감정이 되여 격동하는 시대의 숨결을 더해주고있다.

참으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창조사업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하나의 예술작품에 대한 지도이기에 앞서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력사적행로에 대한 빛나는 총화이며 우리의 국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인민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최후승리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하여주는 불멸의 기치로 된다.

인민은 영원히 기억할것이다.

인민의 힘을 불러일으켜 우리 공화국을 세계에 존엄높은 강대한 나라로 받들어올리시고 영광스러운 조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업적을.

이제 세계는 더욱 아름답고 눈부신 자태로 찬연히 빛나는 사회주의조선의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승철진

시, 군당조직들은 우리 당정책을 앞장에서 집행해나가는 기관차가 되자

이런 사업기풍과 일본새가 중요하다

성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일군들이 뚜렷한 실적을 내자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성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이 이에 대한 좋은 대답으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승리는 전투전에 마련된다고 무슨 일에서나 성과를 거두자면 사업설계부터 잘해야 한다.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도 일군들이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성과가 결정된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은 군을 모범군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설계하면서 이것을 체험하였다.

지난 2월 읍지구에 30여동의 아빠트를 건설할 때였다. 한두세대도 아니고 800여세대를 불과 몇달동안에 일떠세워야 하는 방대한 공사였다. 그런데 군에는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로력이 없었다. 군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의 직접적인 설계가가 되도록 하는데서 찾았다.

우선 살림집건설을 위한 목표부터 높이 세우게 하였다. 천리길도 첫걸음으로 시작된다고 한꺼번에 수백세대를 일떠세워야 하는 방대한 공사인것만큼 목표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세워야 건설에서 새로운 속도를 창조할수 있다고 보았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과 공장, 기업소들이 덩지큰 아빠트를 한동씩 맡아 6월중으로 골조공사를 끝내기 위한 전투목표가 세워졌다. 군이 생겨 일찌기 없었던 목표였다. 매 단위들에서도 단계별목표를 세분화하여 명백하게 세우게 했다. 모든 단위들에서 이렇게 목표를 통이 크게 세우니 일군들이 착공의 첫삽을 박은 그날부터 조건에 포로되지 않고 대담하게 일판을 전개할수 있었다.

군도시경영사업소의 로동자들이 앞선 공법을 받아들여 기와와 블로크생산에서 새 기록을 창조하고있을 때 자그마한 기업소의 로동자들은 아빠트골조공사를 단 36일만에 해제껴 사람들을 놀래웠다.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의 직접적인 설계가가 되여 오늘만이 아니라 래일을 내다보며 목표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현실성있게 세운것, 바로 여기에 군이 살림집건설에서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게 된 비결의 하나가 있다.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의 직접적인 설계가가 되니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즉시에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면 작전을 잘해야 하는것처럼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두자면 작전을 주도세밀하게 짜고들어야 한다. 예로부터 이곳 사람들은 성천군은 돌이 많고 땅이 척박하여 정보당 수확고에서 벌방을 따라앞설수 없는것으로 여겨왔다. 군당위원회는 이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농사작전을 짜고들었다.

우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과학농법학습작전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강하게 밀고나가게 하였다. 지난 1월에도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은 협의회를 열고 과학농법과 관련한 문제들을 가지고 관리위원장, 리당위원장들의 문답식경연을 조직할데 대한 문제, 일군들이 학습지도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할데 대한 문제,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라면 학습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학습조직을 면밀히 짜고들데 대한 문제를 반영한 구체적인 학습작전안을 세웠다. 군당위원회는 이런 학습작전안을 농업부문 당조직들에 내려보내였다. 이것은 군안의 농업부문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과학농법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을 첫 공정으로 틀어쥐고나가게 하는데서 큰 작용을 하였다.

또한 군당위원회일군들이 과학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작전가가 되였다. 읍협동농장과 대봉협동농장을 본보기단위로 정한 군당위원장은 시험포전을 만들게 하고 세벌, 네벌농사를 받아들여 그 우월성을 확증하게 하였다.

군당책임일군이 직접 군안의 협동농장들을 순회하면서 분조장이상 일군들에게 성천군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세벌, 네벌농사이라는것을 원리적으로 해설해주었다.

또한 다수확을 낸 관리위원장, 작업반장, 다수확농장원들을 내세워 그들이 실지 체험한 사실을 말하게 하였다. 하여 온 정협동농장 청년작업반의 다수확자인 박춘옥동무의 농사경험이 군과 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일반화되게 되였다. 이것은 몇백마디의 말보다 위력한 정치사업이였다. 일군들이 과학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서 작전가가 되니 중심고리를 정확히 포착하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최대의 성과가 나타나게 되였다. 최근 몇해동안 군이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된 중요한 비결의 하나는 군당위원회가 일군들이 과학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작전가가 되게 한데 있다.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의 직접적인 실천가가 되자면 해놓은 일에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온이 날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는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지난해 9월 암포천1단계정리공사를 발기했을 때였다.

일부 일군들은 그동안 강하천정리공사를 근기있게 내밀어 거둔 성과도 큰데 다음해에 영농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는것이 어떤가고 하였다. 하지만 군당위원장은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군안의 력량을 총동원하고 중기계수단을 강하천정리를 위한 사업에 총집중하여 립체전을 벌릴 안을 내놓은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제일 어려운 구간을 맡고 《돌격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의 힘찬 구령을 치며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떨쳐나선 가운데 이들은 암포천1단계정리공사를 한주일동안에 와닥닥 끝내고 그 기세로 2단계정리공사도 내밀었다. 하여 여러 정보의 새땅을 찾고 수십정보의 밭이 큰물피해를 받지 않게 되였을뿐만아니라 20정보의 랭습지가 개량되여 많은 알곡을 증산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였다.

지난해 군에서는 농기계작업소에 폐설물에서 연유를 뽑아내는 생산공정과 군에 흔한 부산물로 농약을 생산하는 자력갱생기지를 꾸려놓았다.

최근 성천군에서 일어난 성과를 놓고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높은 실적을 내자면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의 직접적인 설계가, 작전가,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본사기자 손영희

당의 사상관철전의 기수들

심금을 울리는 교양사업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신천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정신력이 올해농사의 성과적결속을 위한 투쟁에서 남김없이 분출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가을걷이전투가 벌어지는 일터들마다에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하기 위한 분위기조성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한편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모든 력량과 수단을 당면한 영농전투에 총동원, 총집중할데 대한 여러건의 정치사업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들끓는 포전들에 나가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기동적으로 벌렸다.

선전선동부에서는 선동원들을 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도 박력있게 진행하였다.

능력있는 군당일군들을 령도업적단위들에 파견하여 선동원들과의 사업에서 경험을 창조하게 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군안의 선동원들의 역할을 한층 높여주었다.

새길협동농장에 나간 선전선동부 일군은 고장난 이동식음향기재들을 수리해주게 하는 한편 붉은기와 이동식속보판의 준비정형을 료해하고 대책을 세워주면서 선동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였다.

백석협동농장에 나간 선전선동부 일군은 앓고있는 선동원의 가정을 방문하고 귀한 약재를 마련해주었다. 그가 자리를 털고일어나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의 헌신적인 모범을 일반화하여 농장안의 선동원들이 전투장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도록 하였다.

이런 사상사업에 의해 지금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다음해농사차비전투에 진입한 단위들이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장철범

대중을 혁신에로 고무추동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백암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올해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옥천, 광덕농장을 비롯한 덕포지구의 농장들에 달려나가 농업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정신적무기이라는것을 뼈속깊이 새겨주고있다. 그리하여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과감히 뚫고나가게 하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특히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백두대지에 뿌리내린 제대군인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제대군인들이 농촌계급진지의 핵심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자료를 만들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얼마전에도 군당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일군들은 덕포지구 농장들에 내려가 농장의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로 성장한 제대군인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그들이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앞장에서 관철해나가는 초급지휘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본사기자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서도록

청진시 포항구역당위원회에서

해당 단위의 발전수준은 당일군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자체의 힘으로 단위발전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가는 포항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올해신년사를 받아안았을 때 구역당위원장의 생각은 깊었다. 도, 시, 군들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이 그의 가슴을 울려주었던것이다.

청진시의 중심에 자리잡고있는 포항구역은 다른 구역들에 비해볼 때 불리한 조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지난 기간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활성화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지난해에만도 피복공장의 건물을 증축하고 새 제품생산공정을 꾸리도록 하였으며 식료공장에서 진공농축기와 사탕알성형기를 제작하여 제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많았다.

구역당위원장은 구역인민위원장과 함께 단위발전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마련하기 위한 문제를 토론하였다. 그 과정에 구역안의 빈땅들에 뽕밭을 조성할 결심을 품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은 뽕밭을 조성할수 있는 빈땅들을 빠짐없이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선행하는 한편 동사무소일군들과 주민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뽕밭조성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정보의 뽕밭이 짧은 기간에 조성되게 되였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는 자체의 힘으로 일떠서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구역당일군들의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준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정서에 자체로 살아나가기 위한 전투목표들이 통이 크면서도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역당위원회 부부장이상 일군들과 구역인민위원회 부장이상 일군들을 지방산업공장들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파견하여 그들이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를 위한 투쟁에로 적극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버섯공장에 나간 구역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공장일군들이 기술자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이끌어주었고 식료공장에 나간 구역인민위원회의 한 일군은 수십리 밤길을 앞장에서 걸으며 생산에서 걸린 원료를 제때에 해결해주었다.

지금 구역에서는 질좋은 비누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자체의 힘으로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이것은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리면서 그들의 자강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는 결과이다.

지금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나 애로와 난관들이 적지 않다. 겹쌓이는 불리한 조건들을 어떻게 타개하며 발전의 지름길을 어떻게 열어나가는가 하는것이 바로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경험은 당일군들이 대중의 힘과 지혜를 믿고 그들의 자강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갈 때 시련과 난관은 극복되고 진격의 돌파구가 열리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주민들의 목소리에서 찾은 일감

강서구역당위원회 일군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어머니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고 당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고있는 강서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이 주목된다.

이곳 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모든 사업과 실천의 첫자리에 놓고 발이 닳게 뛰여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늘 구역안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일감을 찾는것은 이곳 구역당위원회 일군들에게서 찾게 되는 훌륭한 사업기풍이다.

어느날 주민들속에 들어갔던 구역당위원장은 그들로부터 이런 목소리를 듣게 되였다. 구역소재지의 높은 지대에 위치한 살림집들과 다층살림집들에서도 수도물이 잘 나오게 할수 없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구역당책임일군이 느낀바는 컸다.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당사업실천에 구현해나가지 못하고있다는 자책감으로 그는 머리를 들수 없었다. 인민생활문제때문에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며 구역당책임일군은 주민들의 수도물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야말 굳은 결심을 내리였다.

구역안의 인민들에게 수도물을 원만히 보장하자면 오래동안 쓰지 않아 못쓰게 된 수천㎥의 물탕크들을 보수하고 상수도관공사와 전기공사 등을 다시 진행해야 했다.

일부 일군들은 소재지주민들이 당장 물이 없어 고생하는것도 아닌데 구역이 허리를 편 다음에 일판을 전개하는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하지만 구역당책임일군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오늘 인민생활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힘이 들더라도 우리 일군들이 만짐을 지고 달리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며 구역당책임일군은 자신부터 앞체를 뗐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받들어나가자는 구역당책임일군의 진정어린 호소에 구역안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호응해나섰다.

그들은 수도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모르는 길도 수없이 걸으며 물탕크들을 보수하고 뽐프설비를 살려내기 위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이렇게 되여 구역에서는 빠른 기간에 상하수도난방사업소의 건물을 번듯하게 일신시키고 수원지의 물탕크들과 양수설비들을 원상대로 복구하였다. 또한 소재지에 있는 뽐프장들의 설비를 모두 수리정비하였다. 그리하여 구역의 높은 지대에 위치한 살림집들과 다층살림집들에까지 수도물을 해결해주기 위한 사업에 큰걸음을 내짚게 되였다. 이를 계기로 구역당위원회의 일군들이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서 일감을 찾고 만짐을 지고 달리는 기풍이 확립되였다.

최근 구역에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보다 활력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구역에서는 지금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면서도 어린이교통공원, 살림집건설과 같은 인민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일판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시키고있다.

당일군들이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을 위해 만짐을 지고 달릴 때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이런 투철한 관점과 각오를 안고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더욱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생산현장에 들어가 대중을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로 불러일으키고있는 평천구역당위원회 일군 본사기자 찍음

중국예술인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성의 초청에 따라 락수강 문화 및 관광부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예술인대표단이 11월 2일부터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게 된다.

가을걷이전투를 힘있게 지원

성, 중앙기관들에서

성, 중앙기관들에서 올해농사결속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사회주의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을 지원하는것은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원칙의 하나입니다.》

당의 뜻을 받들고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정무원들을 농업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모든 단위에서 농촌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상업성에서 농촌지원사업을 당의 사상관철전으로 여기고 힘있게 밀고나갔다.

성일군들은 염주군의 농촌들에 나가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서 걸린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데 기초하여 그 해결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들은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에서 승전포성을 높이 울려야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내부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었다. 그리하여 농기계들의 가동에 필요한 많은 연유와 피대, 소농기구들을 마련하여 농촌에 보내주었다. 또한 성의껏 준비한 후방물자들을 가지고 주의협동농장에 나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가을걷이를 하면서 올해농사의 마지막돌격전을 벌리는 그들을 고무해주었다. 결과 이 농장이 앞선 단위들의 대오에 들어설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건설건재공업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농업전선을 힘껏 떠밀어주는데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든든히 지키기 위한 일에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는 립장에서 여러대의 이동식탈곡기를 마련하여 벽성군 옥정협동농장에 보내주었다. 또한 발이 닳도록 뛰면서 많은 물자를 보장해주었다. 여기에 고무된 농업근로자들은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속도를 더욱 높이였다.

무역은행 일군들은 올해 알곡생산목표수행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다그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찾았다. 이 과정에 로력적 및 물질적지원사업을 활발히 벌려 농업근로자들의 기세를 부쩍 높여주었다.

어데서나 농촌지원열기로 끓어번지고있는 속에 출판지도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농촌을 힘껏 도와나섰다. 이들은 나라쌀독을 가득 채우는데서 자기들도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안고 많은 영농물자를 준비하여 농촌에 보내주었다.

수매량정성, 경공업성, 채취공업성, 로동성과 조선혁명박물관, 직총중앙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정무원들, 종업원들도 한마음이 되여 떨쳐나 농촌을 적극 도와주고있다.

본사기자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지도를 짜고들어

룡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지난 8월초 룡천군에서는 전국의 청년동맹일군들의 깊은 관심속에 군청년동맹위원회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창조된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사업과 경험토론회가 진행되였다.

각 도, 시, 군청년동맹일군들은 훌륭하게 꾸려놓은 신암협동농장 청년분조합숙과 여러 단위의 청년학교들, 군청년동맹위원회청사 등을 돌아보고 경험토론도 들으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 특히 그들의 심금을 울린것은 청년동맹사업을 적극 떠밀어준 군당책임일군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최근년간 군청년동맹위원회가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이곳 군당책임일군들이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는것과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청년동맹일군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이 사업에 일상적으로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몇해전 어느날 신암협동농장에 나갔던 백성남군당위원장은 청년분조합숙을 돌아보았다.

몇해전에 꾸려놓은것으로 하여 청년분조합숙은 이모저모에서 부족점이 있었다.

군안의 전반적인 청년분조와 청년작업반의 실태를 료해하여보아도 청년교양의 거점답게 꾸려지지 못한것을 비롯하여 어설픈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저 스쳐지날수 없는 문제였다. 군당책임일군은 청년들이 고향땅에 뿌리를 내리고 알곡생산에 이바지하고있다는 성과에 만족하여 청년들과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짜고들지 못한 자책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신암협동농장 청년분조를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잘 꾸려주기로 결심하였다.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군안의 청년분조합숙들과 청년학교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리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합숙건설을 위한 자재를 마련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때마다 군당책임일군들은 청년들을 위한 일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고 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세멘트와 흔석, 철판지붕을 비롯한 자재들을 풀어주었으며 청년분조합숙을 현대적으로 꾸리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이렇게 되여 청년분조합숙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졌던것이다.

군당위원회는 그를 통한 보여주기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온 군에 청년분조합숙과 청년학교를 꾸려주기 위한 열풍이 일었다.

그 나날에 수십개의 청년분조, 청년작업반합숙이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일떠서고 많은 청년학교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되였다.

군당책임일군들은 군청년동맹위원회청사를 꾸리는 사업도 적극 떠밀어주었다. 일부 자재가 부족하여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된 심성희 군당부위원장은 어느 한 단위에 가서 필요한 자재를 해결해왔다.

군당책임일군들은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청년동맹위원회 사무실과 청년학교를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꾸려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었다.

이것은 청년동맹일군들을 발동하는 말없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단위들에서 청년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도록 하였다.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군청년동맹위원회일군들이 분발하였다. 그들은 정치사업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담당한 단위들에 달려나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영농전투가 벌어지는 포전머리에서, 증산돌격전이 벌어지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격식없이 진행하는 화선식정치사업은 청년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이에 고무된 군안의 수많은 근로청년들은 경제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 어깨를 들이밀고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군당책임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다른 하나의 주목되는 점은 청년돌격대활동을 당적으로 적극 떠밀어주고있는것이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삼지연군꾸리기에 떨쳐나선 청년돌격대원들의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 사업을 청년동맹위원회에만 방임하지 않고 당적으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올해 상반년기간에만 하여도 군당위원회의 깊은 관심속에 군에서는 돌격대원들에게 많은 후방물자와 기공구들을 마련하여 여러차례나 보내주었다. 뿐만아니라 돌격대원들이 입을 솜옷과 털모자, 내의와 함께 녀성돌격대원들에게는 화장품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이렇듯 군당위원회가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짜고들어 진행한 결과 청년동맹조직이 강화되고 청년들은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군안의 수백명의 청년들이 사회주의농촌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청년전위의 슬기와 용맹을 떨치면서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갔다. 뿐만아니라 군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청년들은 해마다 청년돌격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백마-철산물길정리공사를 해제끼면서 알곡증산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군안의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로 성장할수 있었다.

실천적경험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청년들의 훌륭한 교양자, 보호자가 되여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짜고들 때 모든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키워나갈수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당의 원대한 건설구상을 현실로 펼쳐나갈 불타는 열의

전국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장을 돌아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으로는 모든 마감건재를 우리 나라에서 자체로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과학기술전당에서는 건축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근로자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전국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특색건재와 에네르기절약형건재, 지능건재, 건축조명 및 불장식의 주체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일떠세우려는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수많은 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이 질좋은 마감건재를 우리 식으로 개발리용하는데서 이룩한 수백건의 연구성과와 제품들이 실물, 도해, 모형 등으로 전시되였다.

우리는 먼저 백두산건축연구원전시대에로 향하였다.

먼적외선복사칠감 및 복사타일, 건식분말돌문양장식칠감, 종이면석고판시공방법 등 전시대를 꽉 채운 많은 연구성과들 가운데서도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은것은 천연돌문양장식타일이였다.

이곳 연구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 장식타일은 건물내외부의 벽체에 자연돌과 같은 질감을 나타내게 하는 마감장식재료로서 독특한 장식효과로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고 한다.

여러가지 돌가공부산물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을뿐아니라 같은 로력을 가지고도 시공속도를 종전의 몇배로 높일수 있는 등 현실적의의가 큰 가치있는 연구성과라고 하면서 연구사들과 그 도입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는 참관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절로 흥그러워지게 하였다.

이들의 모습을 뒤에 남기며 우리의 발걸음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김일성종합대학전시대에로 이어졌다.

전시대를 이채롭게 하는 부각장식제품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것이다.

천연돌이나 금속재료와 같은 여러가지 재료의 질감과 함께 다양한 부각장식으로 건축물의 편리성과 미학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특색있는 마감건재들앞에서 참관자들은 쉬이 발걸음을 떼줄 몰랐다.

알고보니 단순히 미적가치만을 중시한 마감건재들이 아니였다. 음이온과 먼적외선을 항시적으로 내보낼수 있는 기능성특색장식재료들로 만들어진것이였다.

높은 조형예술성을 보장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수 있는 이채로운 마감건재들을 전부 우리의것으로 만들었을뿐아니라 중요기술지표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된데 대하여 참관자들은 매우 기뻐하였다.

이 성과만이 아니였다.

많은 단위들에서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특색건재품, 기능성건재품들을 수많이 출품하여 찾아오는 참관자들에게 우리의 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우리의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안겨주고 우리의것으로 세계를 얼마든지 앞서나갈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이어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성과들과 제품들이 전시되여있는 전시대들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던 우리가 걸음을 멈춘 곳은 해성건재기술교류소전시대앞이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수많은 참관자들에게 둘러싸여있는 한 로과학자를 보게 되였다. 전쟁로병인 박봉실박사였다.

년로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의 대번영기를 빛내이는데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일념밑에 로과학자가 연구완성한 고강도구조접착제(세멘트풀)에 대한 참관자들의 호기심은 참으로 남달랐다.

콩크리트들사이는 물론이고 화강석, 대리석 등으로 만든 판석이나 타일을 비롯한 건축장식마감재료들을 콩크리트면에 철근조립없이 접착시킬수 있는 새로운 고강도구조접착제는 콩크리트방수재료로도 쓸수 있는것으로 하여 리용가치가 매우 컸다.

이를 실증하여주는 시편들을 가리키며 박봉실박사는 우리에게 초기결합세기는 높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세기가 낮아지는 이전의 접착제들과 달리 새로운 고강도구조접착제는 날이 갈수록 그 세기가 올라가고 콩크리트가 깨여져도 이음부는 끄떡없다고, 무게가 수백kg되는 판석의 콩크리트면접착도 단번에 실현시키였다고 자랑담아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이렇게 기술적특성도 우월하지만 더우기는 고강도구조접착제에 들어가는 원료도 첨가제들도 모두 우리의것이라고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는 로과학자에게 참관자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였다.

평양체육단 산하단위전시대에서도 우리는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건축발전에 적극 기여하며 마감건재의 개발과 생산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온 나라 인민들의 불같은 열의를 깊이 느낄수 있었다.

과학기술은 건설을 끊임없는 발전에로 떠미는 추동력이며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있다는것을 자각한 단위의 일군들은 자체의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새 제품개발사업을 부단히 강화하여왔다.

그 과정에 단위에서는 립체적인 질감과 각종 색갈과 문양, 광택을 낼수 있는 다색무늬벽장식칠감, 천연금속제품과 같은 질감을 그대로 내는 금속칠감 등 여러가지 건재품들을 만들어내놓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참관자들의 주목을 끈것은 균렬방지메움재였다. 부피안정성과 내수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그자체가 탄성이 좋고 방습작용을 하기때문에 균렬방지에 아주 효과적이여서 이 메움재에 대한 참관자들의 호기심도 매우 컸다.

이밖에도 에네르기절약형장식조명들과 불장식의 조형화, 예술화실현에 이바지할수 있는 성과들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들에서 최신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 과정에 개발한 다종화, 다색화된 수많은 마감건재품들을 전시하여 참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정녕 그 어느 전시대에 가보아도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우리의것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는 온 나라 인민들의 드높은 열의를 그대로 안아볼수 있었다.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모두는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의 최전성기, 대번영기를 끝없이 빛내여나갈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웠다.

전시회는 마감건재의 주체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위대한 당의 손길따라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우리의 지향과 요구에 맞고 온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우리 식 건축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일떠세워갈 온 나라 인민의 드높은 혁명적기개와 애국적열의를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다.

참으로 이번 전시회는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우리 인민들을 보다 큰 승리에로 고무추동하여준 의의깊은 계기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철웅

체육연구원에서

새로운 체육과학기술개발에 박차를

체육연구원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새로운 체육과학기술성과들을 이룩하기 위하여 불같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연구원의 어느 연구소에서나 창조전, 두뇌전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다.

전찬주원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훈련장들에 자주 나가 매 종목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분석한 기초우에서 토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선수들의 육체, 기술, 전술적잠재력을 더욱 높이는데 의의가 있는 과학적인 훈련수단과 방법, 피로회복수단 등을 적극 탐구도입해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부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현대체육과학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과학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체육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체육과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은 배구, 륙상, 물에 뛰여들기, 바드민톤 등 여러 종목들의 교수훈련지원체계를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과제들을 내세우고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으며 권투, 수영, 정구, 녀자롱구선수들의 체질적특성에 기초한 과학적인 훈련방법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해나가고있다.

체육의학연구소에서는 레스링, 권투, 수영, 빙상호케이, 체조, 유술선수들의 훈련의 매 단계에 따르는 부담판계, 훈련에 의한 외상치료, 최고몸상태조성에 필요한 연구과제수행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체육영양연구소에서는 우리 나라의 원료와 천연약재들로 효능높은 영양제와 피로회복제를 개발하고 특기선수들에 대한 과학적인 영양공급을 위한 연구사업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또한 선수들의 육체적능력을 높이고 피로를 빨리 회복시킬수 있는 영양제들을 연구도입하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체육기자재연구소의 연구사들은 종목별협회들과의 밀접한 련계밑에 우리 식의 훈련기재를 제작하기 위한 연구를 비롯하여 우리 식의 전술체계완성에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수행에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다.

체육과학도서관에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현대체육과학발전추세에 기초하여 체육정보자료수집의 신속성보장에서 의의가 있는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연구원안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이처럼 우리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의 과학화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현실적가치가 큰 연구과제들을 설정하고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이들의 피타는 노력은 우리 선수들이 국제경기무대에서 금메달을 쟁취하는데로 이어질것이다.

얼마전 제22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 연구원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70여건의 성과들을 출품하였는데 그가운데서 여러건이 특등으로, 10여건이 1등으로 평가된것을 비롯하여 30여건이 순위권에 입선하였으며 감독, 선수들속에서 호평을 받았다.

본사기자 강효심

평양곡산공장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새 기술창조의 기수들이 자라나는 곳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모든 종업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들로 준비시키는데서 과학기술보급실이 가지는 의의는 자못 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보급과 도입사업을 잘하며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새 기술개발과 도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질수 있게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평양곡산공장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최신과학기술에 대한 종업원들의 관심과 학습열의를 높이고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고있다.

늘 바쁜 사람들

이곳 과학기술보급실의 자료기지에는 40여만건의 과학기술자료들이 구축되여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 자료기지를 통하여 시간과 품을 적게 들이면서 최근년간에 국내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식료공업부문에서 이룩된 최신과학기술성과자료들을 폭넓게 검색열람하고있다.

지식의 로화주기가 짧은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료기지의 내용들을 부단히 갱신하면서 누구보다 드바삐 지내는 사람들이 바로 과학기술보급원들이다.

적은 인원이지만 이들이 공장의 자료구축 및 검색열람체계에 매번 새롭게 보충하는 자료의 량은 방대하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로부터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최신과학기술성과자료들에 대한 의뢰를 받는 경우 보급원들은 해당 자료들을 자료기지에 신속히 적재한다.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이 공장의 자료기지에로 정상적으로 보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 많은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여 기술기능수준을 높여나가려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학습열의는 비상히 높아지고 보급실운영은 배번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다.

생산과 경영활동에 절실히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과학기술보급실의 자료기지에서 찾고 기쁨을 금치 못하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맡고있는 책임과 임무를 자각하게 된다고 실장 박영철동무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공장의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혁신을 일으키게 할 새 기술, 새 지식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려는것이 이 공장 과학기술보급실 일군들과 보급원들의 확고한 결심이다.

물이 흐르듯이

이곳 과학기술보급실에서는 최신과학기술성과자료들에 대한 보급을 전국적인 보급망들과 이어진 공장의 구내망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몇해전까지는 과학기술보급실에 와서 필요한 자료들을 열람하였다.

지금은 공장과학기술보급실의 자료구축 및 검색열람체계와 련결된 구내망이 매 직장들에 그물처럼 뻗어있어 자료보급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결과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이 참모부서로부터 매 직장들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보급되고있으며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생산현장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매 직장들에 있는 콤퓨터의 자료기지를 통하여 방법론있게 풀어나가고있다.

물이 흐르듯이 과학기술자료들을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보급하고있는 이 공장의 과학기술보급실은 마치도 움직이는 교단을 방불케 하고있다.

과학기술보급실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료기지열람을 한 후에는 학습과제를 명확히 주고 그에 대한 인식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하고있다.

우리와 만난 공장의 기술발전책임기사 리성윤동무는 질의응답과 발표회, 발취, 기술학습, 필답시험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진행되는 인식정형에 대한 총화에서는 누구보다도 일군들이 앞장서고있다고 하였다.

경영활동에 필요한 과학기술자료들을 열람한 후에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이 직접 출연하여 종업원들에게 해당 기술자료들을 상세히 알려주고 그와 관련한 다매체편집물도 방영하여 새 기술, 새 지식에 대한 관심과 학습열의를 비상히 높여주고있다.

이런 발표회가 자주 진행되면 될수록 공장안에는 새 기술, 새 지식에 대한 학습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진다고 한다.

공장에서는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고있는데 과학기술보급실의 활발하면서도 실속있는 운영은 공장의 기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수정

45분수업을 위해 바쳐가는 열정

숙천군 영웅숙천고급중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원들이 자질이 높아야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사고를 계발시킬수 있으며 교수내용을 깊이 인식시킬수 있습니다.》

10여명의 영웅을 배출한 영웅숙천고급중학교는 깨우쳐주는 교수에서 전국의 본보기를 창조하여 온 나라에 소문을 냈던 학교이다.

이 학교는 최근년간에도 해마다 수십명의 7.15최우등상 수상자들을 키워내고 많은 학생들을 높은 성적으로 상급학교에 입학시켜 사람들속에서 실력있는 학교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그 비결에 대해 묻는 우리에게 학교의 일군인 최경옥동무는 어렵지 않게 대답을 주었다.

《45분수업시간을 어떻게 리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힘든 45분》과 《쉬운 45분》

일군이 들려주는 《힘든 45분》과 《쉬운 45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호기심을 끌었다.

교원이 품들여 준비한 《힘든 45분》은 학생들에게는 사물현상의 본질과 리치를 빨리 깨닫게 하는 《쉬운 45분》으로 되며 학생들이 리해하기 어려워하는 《힘든 45분》은 교원이 교수준비에 품을 많이 들이지 않은 《쉬운 45분》이였다는것을 말해준다.

45분을 대하는 이 학교 교육자들의 관점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학생들이 45분수업시간에 단 한순간도 헛눈을 팔지 않고 그날 배우는 내용을 거의다 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실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었다.

일군이 내놓은 한권의 두툼한 책이 그에 대해 말해주고있었다.

그 책은 바로 현대교육발전추세자료들과 교수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필요한 각 분야의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여 적어넣은 자료집이였다.

학교의 대다수 교원들에게 이런 자료집이 여러권이나 된다는것이였다.

이들은 교수에 현실자료들을 적극 인입하는것과 함께 직관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데도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45분수업시간에 교과서에서는 볼수 없었던 보다 풍부한 자료들을 걸그림과 모형, 실물, 그와 관련된 동영상 등 각이한 수단들을 통해 알게 되니 학생들의 집중력과 인식능력이 철씬 높아졌다.

교원의 한마디한마디가 재미있는 45분, 끝없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갖가지 직관물들의 도움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의 본질을 스스로 찾아내는 45분에는 바로 이곳 교원들이 자료수집을 위해 지새운 밤들과 보다 생동한 직관물들을 착상, 설계하고 만들어내느라 뛰여다니던 나날들의 헌신이 남모르게 스며있었다.

학생의 질문과 교원의 대답

수업시간에 교원과 학생사이에 질문과 대답이 오고가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곳 교육자들은 이 문제에서도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있었다. 즉 45분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질문수를 극력 늘여야 한다는것이다.

어느 한 신임교원의 교수에 대한 합평회때였다.

그의 교수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였다.

교원의 화술도 좋고 리해가 잘되게 가르치는 능력도 높다. 학생들도 수업에 집중하였다. 그만하면 미끈하게 흘러간것 같다. …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스쳐지나지 말아야 할 문제들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교원이 응용문제를 제시하였을 때 적지 않은 학생들이 주밋주밋하면서 대답하기를 저어하였던것이다. 이것을 놓고 교원들속에서 토론이 심화되였다.

오늘 자신감에 넘쳐 손을 든 학생들은 앞으로 조국의 부름앞에도 그렇게 선뜻 자신있게 나설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수업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자각성, 적극성,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에로 지향되지 못하고 주입식으로 진행된데 있다.

방도는 무엇인가.

수업의 이끌기공정에서부터 학생들이 자각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 문제점도 그들스스로가 찾도록 인도해주며 그에 대한 답도 경쟁적으로 탐구하고 찾아내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이 배워준 내용을 따라가며 물어보는 식으로가 아니라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에 흥미를 가지고 교원에게 계속 질문하는 식으로 되여야 할것이다. 그러자면 교수준비에 보다 많은 품을 들여야 한다. 이러한 열기떤 합평회들이 진행될 때마다 교원들의 자각성과 책임감은 더욱 높아졌으며 신임교원들의 수준도 몰라보게 발전하였다.

일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취재를 시작할 때 했던 말이 우리의 귀전에 다시 울려왔다.

《45분수업시간을 어떻게 리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음미해볼수록 그것은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끝없는 헌신속에 날과 달을 이어가는 이곳 교육자들의 깨끗한 량심의 메아리였다.

김수정

독자의 편지

지난 7월 저의 남편에게 내려진 진단은 행복이 넘치던 우리 가정에 그늘을 던져주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남편의 심한 병상태를 두고 손맥을 놓고있을 때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5외과의 의료일군들은 여러차례의 진지한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환자를 살려낼 방도를 찾아나갔습니다.

기존치료방식에 매달린다면 환자의 생명을 이제 수십일밖에 연장하지 못한다. 현대의학의 힘으로 기어이 환자를 소생시키자. …

최성국과장과 담당의사, 간호원들은 이렇게 굳은 결심을 품고 환자를 살려낼수 있는 효과적인 수술방안을 끝끝내 찾아냈으며 수술후에는 회복치료에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의사들만이 아니였습니다. 특별한 연고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이다싶이 남편을 찾아와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한 평범한 작가의 건강을 위해 만경대혁명학원 교원,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학생, 중구역상하수도관리소 로동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병마와 싸워이기도록 고무해주고 성심성의껏 도와주었습니다.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사회에서 태여났기에 저의 남편은 다시금 대지를 활보하게 된것입니다.

인간사랑의 힘, 정성의 힘이 명약이 되고 불사약이 되여 소생한 저의 남편은 온 나라에 인민사랑의 아름다운 화원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감사의 큰절을 드리고있습니다.

구장군 읍 185인민반 고정심

학생들의 실천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교수방법을 적극 도입해나가고있다.
—황북종합대학 리계순제1사범대학에서— 본사기자 찍음

조선유럽동맹친선의원단과 유럽의회 조선반도관계담당분과대표단사이의 회담진행

조선유럽동맹친선의원단과 유럽의회 조선반도관계담당분과대표단사이의 회담이 3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유럽동맹친선의원단 위원장 리종혁동지, 의원단성원들이, 상대측에서 너즈 데바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의회 조선반도관계담당분과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두 의회들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세계태권도》방문단 평양에 도착

【평양 10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정원 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세계태권도》 방문단이 3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국제태권도련맹과 조선태권도위원회, 관계부문 일군들이 방문단을 맞이하였다.

이날 국제태권도련맹은 《세계태권도》방문단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 로씨야를 방문하고 귀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명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로씨야련방을 방문하고 30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마중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보위원회대표단 영국, 프랑스, 중국 홍콩을 방문하고 귀국

공보위원회 부위원장 조영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보위원회대표단이 영국, 프랑스, 중국 홍콩을 방문하고 30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우리 나라 중앙재판소 소장과 로씨야최고재판소 소장사이의 회담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소장 강윤석동지와 바체슬라브 레베제브 로씨야련방 최고재판소 소장사이의 회담이 3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판계부문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로씨야련방 최고재판소대표단 성원들, 주조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 재판기관들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지자기폭풍에 대한 자료

2018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자기폭풍이 예견되는 날은 다음과 같다.

11월 3일: 활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4일과 5일, 6일, 9일, 11일에는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수 있다.

로씨야련방 최고재판소대표단 해방탑에 화환진정

바체슬라브 레베제브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최고재판소대표단이 30일 해방탑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해방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중앙재판소 제1부소장 최근영동지와 알렉싼드르 마께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로씨야련방 최고재판소 소장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된 다음 참가자들은 조선의 해방을 위한 전투에서 전사한 쏘련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해방탑을 돌아보았다.

로씨야련방 최고재판소대표단 도착

바체슬라브 레베제브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최고재판소대표단이 3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중앙재판소 제1부소장 최근영동지와 알렉싼드르 마께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모두다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강땅이 자랑하는 참된 녀성일군

희천은하피복공장 지배인 장이영희동무에 대한 이야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정든 고장이라고 하시며 류다른 애착속에 끝없이 찾고찾으시던 자강도는 인민의 사랑을 받는 녀성일군들이 많은 고장으로도 유명하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불패의 국력이 그 어느때보다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오늘 우리는 또 한명의 미더운 애국자, 희천땅의 참된 효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믿음과 사랑에 일로써 보답할줄 아는 진짜배기 혁명가가 되여야 합니다.》

희천은하피복공장 지배인 장이영희동무는 지배인으로 사업한 지난 6년동안 주저앉다싶이 하였던 공장을 2중3대혁명붉은기공장,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공장, 모범체육공장, 모범준법단위로 내세우기 위하여 불같이 헌신하였다.

해마다 많은 성과를 이룩한 공장에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올해에는 로력훈장까지 수여되였다. 공장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해한다. 하지만 지배인 장이영희동무가 받아안은 어머니당의 천설같은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누구나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가 새겨가는 삶의 자욱자욱은 위대한 우리 당과 운명의 피줄을 이은 사람이라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보답의 주로를 억세게 꿋꿋이 이어가야 하며 바로 그 길우에 인생의 행복과 삶의 보람이 있다는 진리를 만사람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새겨주고있다.

달리는 못살아

지금으로부터 6년전 3월 어느날 희천시당위원회의 한 사무실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그 다리가 여전히 말썽을 부리는것 같구만.》

《그래도 전보다는 한참 나아졌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그들은 시당위원회 책임일군과 당시 시인민위원회의 일군으로 사업하던 장이영희동무였다.

한동안 장이영희동무를 유심히 살펴보던 시당책임일군은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했지. 중학교 부교장, 버섯공장 지배인, 시인민위원회 일군… 참 동무를 보고 사람들이 〈도로부장〉이라고 한다지.》

사실이 그러했다.

시인민위원회 일군으로 사업하면서 그의 첫 일과와 마지막 일과는 언제나 시안의 도로를 순회하는것이였다. 자강도는 자신의 정든 고장이라고 하시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강땅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시안의 도로를 관리하는 사업을 스스로 맡아나선 그였다. 그 나날 1년 365일을 하루와 같이 수십리길을 오가며 무리한탓인지 한쪽 다리가 말을 잘 듣지 않았다.

그런 그를 두고 언제부터였던지 사람들은 《우리 도로부장》이라고 정담아 불러왔던것이다.

이윽고 시당책임일군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렸다.

《시당집행위원회에서는 동무에게 희천은하피복공장 지배인사업을 맡기기로 토론이 있었소.》

순간 장이영희동무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사실 시당위원회에서 부른다는 련락을 받았을 때 년로보장을 앞둔 자기의 나이를 돌이키며 일손을 놓게 될 앞날을 그려보았던 그였던것이다.

너무도 뜻밖의 신임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의 심정을 읽은듯 책임일군은 말했다.

《동무가 좀전에 말하지 않았소. 할 일이 많다고. 나이도 있는 동무에게 좀 헐한 일을 맡겨야겠는데…》

장이영희동무는 번쩍 머리를 쳐들었다.

《아닙니다. 전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한동안 흐르는 침묵, 서로 마주보는 눈빛…

《고맙소. 동무야 달리는 살수 없는 사람이지. 사실 그 공장의 형편이 시원치 않소. 그러나 우린 애국렬사의 딸인 동무를 믿소.》

장이영희동무에게는 애국렬사의 딸이라는 부름이 그때처럼 비상한 의미로 들려온적은 없었다고 한다.

애국렬사의 딸이라고 더욱 뜨겁게 믿어주고 내세워주는 당의 사랑은 그가 아버지처럼 충정의 넋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뜨거운 기대이고 당부였다.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당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버지의 애국렬사증을 어루쓸며 오래도록 이불깃을 눈물로 적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 아니였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애국렬사라는 값높은 칭호를 받아안게 되였으랴.

너무도 일찌기 세상을 떠난것으로 하여 자식들의 기억에조차 희미해졌던 아버지, 그러나 당에서는 떠나간 전사의 위훈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사려깊은 눈길로 보살피고있었다. 하여 수십년세월이 흐른 후 아버지에게 애국렬사증이 수여되는 천설같은 화폭이 펼쳐지게 되였던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당의 품이 있어 전사는 비록 갔어도 그의 삶은 영생하게 된것이다.

장이영희동무가 가보처럼 여기는 두상의 기념사진에는 또 얼마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장이영희동무는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고 자랐다. 그런 그의 마음속아픔을 헤아려 당에서는 장이영희동무의 아버지가 새 조국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두차례에 걸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을 찾아 보내주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었던것이다.

정녕 시작은 있어도 그 끝을 헤아릴수 없는것이 바로 어머니당의 사랑이였다.

그는 아버지의 애국렬사증앞에서 굳게 마음다졌다.

(아버지가 못다 바친 충정까지 합쳐 나의 모든것을 다하리라. 한생을 당에 충실한 아버지처럼 나도 당의 참된 효녀가 되리라.)

이튿날 장이영희동무는 열정에 넘친 걸음으로 공장구내로 들어섰다.

우리 잠시 년로보장을 앞둔 나이에도 새 직무를, 주저앉다싶이 한 일터를 기꺼이 맡아나선 그의 고결한 정신에 자기의 량심을 비추어보자.

나 하나만의 명예를 생각하며 새 일감앞에서 잠시 주춤한 적은 없는가. 일정한 공적을 세웠다고 그것으로 만족한적은 없던가.

당시 공장의 실태는 장이영희동무가 짐작했던것보다 더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난관앞에서 주저하지도 비관하지도 않았다. 앞으로 걸머져야 할 무거운 일감, 헤쳐가야 할 험로를 시시각각 느끼면서 그는 당이 걱정하는 문제를 다름아닌 애국렬사의 딸인 자기가 풀게 되였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기쁘고 긍지스러웠다.

장이영희동무는 달리는 살수 없는 애국렬사의 딸이기에 누구나 서슴어하는 일감을 솔선 맡아나선것이다.

그 언제나 당의 딸

자식이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것을 도리로 여기듯이 정치적생명을 주고 그것을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는 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는것은 혁명전사의 마땅한 의리로 된다.

장이영희동무는 보답의 그 길에서 순간이나마 마음이 지체세동진 애국렬사의 딸인데 우에다 좀 도와달라고 하면 모른다고는 하지 않을거라고 했을 때였다.

《부모의 주머니가 빈것을 알면서도 손을 내미는 자식이 있어요? 힘들어도 자체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며 착공의 첫삽을 억세게 박는 그의 심중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난 아버지의 공적을 지팽이로 삼고싶지 않아요. 당에서 애국렬사의 유가족이라고 그처럼 내세워주는것은 일을 더 많이 하라는것이지 결코 생색을 내며 대우를 받으라는것은 결코 아니예요.)

장이영희동무는 바로 이런 사람이였다.

그는 건물 하나를 지어도 당에 기쁨을 드릴수 있게,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완성하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때로는 설계가로, 때로는 자재인수원으로 되여 발이 닳도록 뛰여다녔다.

공사가 힘겹게 진행되고있던 어느날이였다.

초급당일군은 질통을 지고 지팽이를 짚으며 불편하게 층계를 오르는 한 녀인의 모습에 눈길을 주었다. 자재때문에 먼 길을 다녀온 지배인이 분명하였다. 건설이 시작된 첫날부터 아예 합숙에서 살면서 그렇게 불같이 일하다가도 남들이 다 잠든 깊은 밤에는 저려드는 다리를 붙안고 모지름을 쓰는 지배인의 모습을 한두번만 보아오지 않은지라 초급당일군은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다짜고짜로 질통을 빼앗았다. 종업원들도 안타까운 눈길로 지배인을 바라보았다. 그러는 종업원들에게 장이영희동무는 목이 메여 말하였다.

《이제라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 일터에 찾아오시면 기쁨을 드릴수 있을가 하고 생각할 때마다 난막 가슴이 죄여들어요.》

그리고는 다시 질통을 지고 층계를 올랐다.

종업원들의 가슴속에는 그날 지배인이 한 말이 오늘도 깊이 새겨져있다.

장이영희동무의 이런 피타는 노력이 있어 공장은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여 나라에 많은 리익을 주는 보배공장으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가 확립된 멋쟁이공장으로 전변되였다.

오늘 이곳을 찾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옷보상판지지점에 의한 천정처리방법도 다름아닌 지배인 장이영희동무가 착상한것이다. 그는 합숙을 건설해도 모범합숙으로, 과학기술보급실과 연혁소개실, 제품견본실을 꾸려도 본보기로 일떠세웠다.

장이영희동무는 지배인으로 사업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종업원들을 당의 참된 효녀들로 키우는것을 자기의 첫째가는 본분으로 여기고 일해오고있다.

그가 종업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얼마나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는가 하는것은 공장에서 매일 진행되고있는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학습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작업현장이 새로 번듯하게 꾸려지자 일군들은 경쾌한 노래를 들으며 종업원들이 일하게 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때 지배인은 도리머리를 흔들었다고 한다.

《종업원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을 들려줍시다.》

그리고는 그길로 필요한 설비들을 마련하기 위해 수백리 먼길을 떠났다.

이렇게 되여 현장에서는 종업원들이 회고록학습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게 되였다. 하여 종업원들이 회고록의 구절구절을 뜬금으로 외우게 되였고 이 과정에 그들의 사상정신세계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두해전 모든 힘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총동원, 총집중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떨쳐나섰을 때였다. 공장종업원들은 수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하는것과 함께 많은 솜옷을 빠른 기일안에 만들어 북부전선에 보내주자고 궐기해나섰다. 사실 그것은 생산능력을 초월한것이였다.

《우리모두 소왕청의 재봉대원들처럼 싸우자요.》

지배인의 말은 누구에게나 항일의 녀대원들의 투쟁모습을 되새겨주었다.

2~3대밖에 안되는 재봉기를 가지고 대대나 련대에 소요되는 군복을 도맡아 제작한 소왕청의 재봉대원들은 생산능력을 뛰여넘는 과부하가 생길 때마다 밤잠도 자지 않고 일손을 다그쳤다. 잠이 오면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며 노래를 불렀다는 항일의 녀대원들.

종업원들은 두눈이 벌겋게 충혈이 지고 입술이 부르텄지만 누구도 쉬이 자기 초소를 뜨려하지 않았다. 하여 불과 3일동안에 천여벌의 솜옷을 마련하여 북부피해복구전투장에 보내줄수 있게 되였다.

항일의 녀대원들처럼 살며 싸우려는 그들의 정신을 어찌 수천, 수만벌의 솜옷에 비길수 있으랴.

장이영희동무(가운데)

공장의 곳곳에 새겨진 당의 기본구호들과 표어들, 복도에 게시된 직관물 하나하나에도 장이영희동무가 바친 헌신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종업원들을 참된 효녀로 키우는 길에 한몸이 그대로 밑거름이 되려는 각오를 안고 장이영희동무는 늘 종업원들의 생활을 친어머니의 사랑으로 돌봐주고있다.

공장에는 세쌍둥이가 있다. 일찌기 부모를 잃고 함숙생활을 하는 세쌍둥이는 그를 어머니라고 부른다. 화장품이 하나 생기고 신발이 한켤레 차례져도 세쌍둥이를 먼저 생각하는 다심한 지배인, 결혼상도 차려주었고 새살림을 펼 보금자리까지 마련해주었으며 그들에게 자식들이 태여나면 마치 외손자가 생긴듯이 기뻐하며 돌봐주는 그의 진정은 정녕 친어머니의 사랑이였다.

그가 세쌍둥이에게 기울이는 사랑은 단순히 부모를 잃은 그들에 대한 동정도, 일군으로서 종업원들을 위해주어야 한다는 의무감때문도 아니였다. 당의 사랑을 남보다 더 받으며 자란 그들이 알찬 열매가 되고 모두다 혁신자가 되여 하늘같은 그 은정에 보답하기를 바라는 웅심깊은 마음에서였다.

어찌 이들뿐이랴. 누구에게나 장이영희동무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 수백명의 종업원들은 모두 그의 친혈육, 살붙이였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짜고들어 중요명절때마다 많은 물자들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있으며 철따라 남새들도 떨구지 않고 보장하고있다.

공장초급일군들의 하루사업총화에서 지배인의 첫말이 그날 후방부문에서 보장하는 콩국과 빵을 종업원들이 다 들었는가라는 물음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는 여기에 공장에서 일하다 년로보장을 받은 사람들의 김장남새로부터 땔감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 일처럼 맡아안고 마음쓰고 시안의 건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친딸의 심정으로 돌봐주고있는 장이영희동무에 대한 하많은 이야기를 다는 전할수 없다.

* *

얼마전 당에서는 그에게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의 값높은 영예를 안겨주었으며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었다.

누구나 장이영희동무처럼 보답의 길에서는 쓰러질 권리도, 물러설 자리도 없으며 필요하다면 뼈를 깎고 살도 저며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분발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한다면 내 조국의 전진속도는 그 얼마나 빨라질것인가.

이런 참된 녀성일군들, 효녀들이 많은것은 우리 당의 더없는 자랑이다.

장이영희동무는 오늘도 삶의 순간순간 당의 사랑과 믿음을 뜨겁게 새겨안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경일
본사기자 신철

설비관리, 기대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지열난방보장사업을 정상화해나가고있다.
—중앙열망사업소 미래과학자거리지열분사업소에서— 본사기자 김광림 찍음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모란봉구역원림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모란봉구역원림사업소는 소문없이 일 잘하는 단위이다. 올해에도 사업소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30여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 많은 량의 효능높은 생물농약을 생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원림록화사업을 잘하는것은 나무숲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하게 하여 수도의 풍치를 돋구며 시민들에게 문화정서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소에서 보기도 좋고 경제적가치가 있는 나무들로 가로수들을 교체하는 등 원림록화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목표를 세웠을 때였다. 사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아직 원만하지 못한것을 고려하여 일부 사람들이 머리를 기웃거렸다.

하지만 일군들은 높은 책임감을 안고 방도를 찾기 위해 지혜를 합쳐나갔다. 그 과정에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위력을 높이 떨쳐나갈 때 원림록화사업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올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김영길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굳은 결심을 품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아무리 바빠도 원림록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서적들만은 놓치지 않고 열심히 탐독하였다. 그리고 리춘호책임기사와 실력있는 사람들로 무어진 기술혁신조가 과학기술학습열풍을 일으키는데서 핵심적역할을 하도록 이끌어주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원림록화사업에 이바지할 혁신적인 안들이 련이어 나왔다. 일군들은 이것이 훌륭한 결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였다.

여러 대학의 권위있는 연구사들을 찾아 수십리길을 오갔으며 실패에도 주저하지 않고 끝끝내 고각전정기계톱을 만들어냈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배낭식잔디깎는기계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기계들을 제작하였다. 뿐만아니라 효능높은 생물농약을 생산할수 있는 기지도 꾸려놓았다.

이런 성과에 토대하여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구역의 원림록화사업을 혁신해나갔다. 이들은 보기도 좋고 경제적가치가 있는 나무를 심는 원칙에서 거리들의 특성이 살아나게 수종을 선택한 다음에는 정성을 다하여 심어가꾸었다.

실례로 어느 한 거리에는 회화나무를, 다른 곳에는 은행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가로수를 배치하였다.

영웅거리에서 푸르싱싱 자라고있는 수십그루의 금잎회화나무들에도 원림록화사업을 혁신하기 위해 애쓴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남다른 노력이 깃들어있다.

이뿐이 아니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하천을 정리하고 그 주변에 많은 나무와 지피식물들을 풀들여 심었다. 그리고 보도블로크를 자체로 생산하여 구역의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많은 량의 효능높은 생물농약을 생산하였으며 수상화초재배에서도 성공하였다.

이런 성과들은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위력을 높이 떨쳐나가는 과정에 이룩된것이다.

오늘도 이들은 원림록화사업을 잘할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구역안의 거리와 마을들을 보다 훌륭히 꾸려가기 위해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영학

늘어난 학위소유자대렬과 자질향상

원산시제1인민병원에서

의료일군들의 자질을 높여 치료예방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단위들에 대한 취재과정에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의료일군들의 자질은 학위론문집필과정에 더욱 높아지게 된다는것이다.

얼마전 우리가 찾은 원산시제1인민병원의 경우에도 그러했다. 취재과정에 우리의 관심을 보다 모은것은 학위소유자대렬을 방법론있게 늘여온 이곳 일군들의 사업경험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사업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과학기술사업입니다.》

10여년전 박명석동무가 이곳 원장으로 임명되여왔을 때 의료일군들의 림상실기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비해 그리 높지 못했다.

일정한 시일이 지나 원장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학위소유자대렬을 늘이는 과정을 통하여 병원의료일군들의 자질을 높일 결심을 하였다.

여기서 이들이 잘한것이 있다.

보짱을 세게 올리려면 기둥을 잘 쳐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성과의 여부는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는데 있다.

이곳 일군들은 학위소유자대렬을 늘이기 위한 첫 사업으로 외상외과 과장 전복실동무의 학위론문지도에 힘을 넣기로 하였다. 리유가 있었다. 당시 그는 50대였다. 몇해후면 년로보장을 받게 될 그가 가정부인의 몸으로 학위를 받으면 다른 의사들에게 미칠 영향이 클것이라고 병원일군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일군들의 의향을 듣고 난 과장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과장의 머리속에는 몇해후면 집에 들어갈 나이에 학위를 받아서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관념이 자리잡고있었다.

외상외과 과장과의 담화를 통해 병원의료일군들의 사상관점부터 바로잡아주어야 함을 깨달은 원장은 어느날 종업원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학위론문을 집필하는 과정에 해당 부문의 지식을 더 깊이 다지게 된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입니다. 그렇게 놓고볼 때 학위소유문제는 개별적의료일군들의 명예문제이기에 앞서 인민에 대한 관점문제로 됩니다. 하기에 학위소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권리이기 전에 의무로 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얼마후 전복실과장은 학위론문집필을 시작하였다. 워낙 풍부한 림상경험을 가지고있었던지라 학위론문집필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여 그는 50대초에 학위를 받았다.

그후 병원에는 전례없는 학위론문집필열풍이 일었다.

이런 경우 짧은 기간에 학위소유자대렬을 부쩍 늘여놓고 그것으로 단위사업의 성과를 론하는 일군들도 간혹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첨단진단설비가 적은 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의 힘으로 질병진단 및 치료에 이바지할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담당지역들에서 발병률이 높은 질병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 깊이 료해하였다. 그에 이어 병원의 의료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종자를 잡고 학위론문을 집필하되 일군들과의 련계밑에 전망성있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때부터 10여년동안 병원에서는 해마다 두세명의 의료일군들이 학위를 받아 오늘은 수십명이 학위를 소유하게 되였다.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학위론문집필과정이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애쓴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에 대해 잘 알수 있었다.

사실이 그러했다.

병원에서는 첨단진단설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던 중증뇌질병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진단하는 방법을 찾아내여 환자치료에 이바지하고있다. 또한 지난 몇해동안에만 해도 불임증에 걸린 수십명의 녀성들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여 아이를 낳고싶어하던 그들의 소원을 풀어주었다. 그들중에는 결혼후 8년만에 자식을 본 녀성도 있다. 병원의 복부외과에서는 오래동안 수술에 의거해온 부인과적질병을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회복시켜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최근에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 동원된 건설자들에 대한 치료를 잘하여 실력이 높은 단위의 영예를 떨치고있다.

병원에서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이 의료일군들의 학위론문집필과정에 마련되였다고 하니 결코 무심히 들을수가 없었다.

오늘 어느 단위에 가보나 주객관적조건은 같다고 하지만 실적에서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원산시제1인민병원에 대한 취재과정에 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는 방법론을 정확히 찾아쥐고 일관성있게 내밀 때 비약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된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체득하였다.

학위소유자대렬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의료봉사활동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박명석, 김성국동무를 비롯한 원산시제1인민병원 일군들의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방경찬

낟알털기실적을 높인 비결

연탄군 읍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연탄군 읍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이 가을걷이를 지난해보다 15일 앞당겨 끝낸 기세드높이 련속공격전을 벌려 짧은 기간에 낟알털기를 결속하였다.

이 성과는 뜻깊은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할 비상한 각오와 높은 책임감을 안고 이악하게 노력해온 이곳 일군들의 진취적인 일본새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올해 농장에서는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지난해보다 보름정도 앞당겨 끝낼 높은 목표를 세웠다.

무슨 일이나 과학적인 타산과 주도세밀한 작전에 기초하여 완강하게 실천해나갈 때 좋은 결실로 이어질수 있다.

농장일군들은 애써 지은 곡식을 한알도 허실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는것은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관점에서 수행방도를 찾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나갔다.

그 과정에 이들은 강냉이밭이 대부분인 농장의 실정에서 뜨락또르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의 가동률을 높이면 얼마든지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의 속도와 질을 보장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신심을 가진 일군들은 즉시 필요한 조직사업을 따라세웠다.

우선 뜨락또르의 만가동보장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일군들은 농장자체의 기술력량과 수단으로 수리정비를 최단기간내에 다그치기 위한 작전을 펼쳤다. 이와 함께 내부에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작업반들의 탈곡기들과 탈구지들에 대한 수리정비와 중소농기구준비도 농장적인 사업으로 내밀었다. 결과 모든 단위들이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의 시작부터 힘찬 걸음을 내짚을수 있었다.

잘 뗀 시작이 보다 좋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하자면 일군들이 실정에 맞는 방도를 찾아 완강하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사실 지난해의 농사결속정형을 분석하면서 일군들이 자책한것이 있었다. 제2작업반을 비롯한 대다수 작업반들이 일정계획대로 농사결속을 하였지만 일부 단위는 그렇지 못하였다. 결국 뒤떨어진 작업반들의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는 다른 단위들이 도와주어서야 끝나게 되였고 이것은 농장적인 농사결속과 다음해농사차비에 후과를 미치게 되였다.

이것을 놓고 농장일군들은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질데 대한 당정책적요구를 다시금 뼈속깊이 새기였다.

책임감을 더욱 깊이 자각한 이들은 마음의 신들메를 바싹 조이고 분발해나섰다. 일군들은 뒤떨어진 작업반들에 나가 한성원이 되여 힘든 모퉁이마다에 어깨를 들이밀고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또한 앞선 단위를 따라잡기 위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합리적인 로력조직으로 당면한 영농공정수행에서 다른 단위들보다 앞서나가고있는 제2작업반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전개하였다.

일군들의 과학적인 전투조직과 이신작칙의 일본새는 그대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서 혁신을 일으키게 하는 밑거름이 되였다. 작업반, 분조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농장적인 가을걷이는 지난해보다 보름이나 앞당겨 결속되였다. 또한 각 작업반들에서의 낟알털기실적도 련일 뛰여올랐다.

경험은 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이악하게 실천해나간다면 아무리 불리한 조건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

우리 나라를 방문한 수많은 외국의 벗들은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조선이야말로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일심단결의 나라,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강위력한 나라이라고 한결같이 격찬하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각하를 열렬히 따르며 존경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조선의 힘, 일심단결이라는것을 절감하였다.》, 《일심단결은 조선의 상징》, 《조선의 위대함과 강대함을 목격하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전체 인민이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고 령도자와 사상과 뜻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나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사회주의길로 꿋꿋이 나아가는 나라는 오직 우리 공화국밖에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입니다.》

우리 나라는 위대한 일심단결의 나라이며 우리 사회는 일심단결의 대가정이다.

단결의 공고성과 위력은 사상과 의지, 행동의 일치에서 나타난다. 백만이 모여도 한뜻이 되고 천만이 뭉쳐도 한몸이 되는 우리의 일심단결이야말로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것이다.

일심단결은 천만의 대오를 하나의 사상의지로 묶어세울수 있는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이 있을 때만이 실현될수 있다. 다시말하여 탁월한 수령을 모실 때에만 이루어질수 있다.

지난 시기 일부 나라들에서는 로동계급의 수령과 인민들사이에 맺어졌던 진정한 동지적관계가 말살되였다. 당안에 기어든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출세와 공명에 눈이 어두워 로동계급의 수령들을 모독하고 수령의 업적을 외곡, 말살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여 사상과 뜻을 같이하면서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있다.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에 기초한 우리의 일심단결은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억센 신념의 결정체이다.

이 위대한 단결이 있어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길로 꿋꿋이 나아갈수 있었으며 자기의 행로에 승리와 영광의 자욱만을 아로새길수 있었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령도자를 높이 받들고 따르는것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조선의 참모습이다.

수령과 당과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백전백승해온것이 조선혁명이였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값높은 삶을 누려왔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매한 인품, 덕망에 인간적으로 매혹되여 끝없이 흠모하며 높이 받들어왔다. 절해고도에서도 변치 않는것이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충정이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에 앞서 선전수단들을 리용하여 대대적인 심리모략전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그 나라 인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믿지 않게 만들어 침략목적을 손쉽게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신념이 확고하지 못한 인민은 오래 지탱할수 없는 법이다. 그러한 인민에게 차례지는것은 전란과 파괴,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 궁핍뿐이다.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과 《반테로전》, 《색갈혁명》의 희생물이 된 나라들의 교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수령과 인민이 동지적사랑과 믿음으로 결합된 우리의 일심단결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다.

령도자와 인민이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합된 우리의 일심단결이 있어 우리를 어째보려는 원쑤들의 책동은 물거품으로 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앞당겨지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일심단결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기 위해 가장 비렬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제재압박소동에 열을 올리면서 반동적인 사상문화침투책동을 강화하고있다. 저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우리 내부에 자본주의쉬를 쓸게 하기 위해 미신, 류언비어를 통한 내부와해전에 열을 올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발악한다 해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슬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손길아래서 사상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난 우리 인민의 신념을 결코 허물수 없다.

일심단결을 무기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투적기질이며 투쟁기풍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행사들을 통하여 진보적인민들은 조선의 불패의 힘의 원천을 일심단결에서 찾고있으며 그 승리를 확신하고있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랍지역위원회 서기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를 보고 태양과 같으신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따뜻한 답례를 보내주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우러러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군중들을 보면서 일심단결이란 말의 의미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세인이 그토록 찬양하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오직 조선에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것이다고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터놓았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재부이며 필승의 무기이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다.

라 명 성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전람회

로씨야에서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전람회가 25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로씨야 크라스노야르스크시에서 진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로친선관계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담은 영상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전람회개막식에는 로씨야 크라스노야르스크시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들, 이 나라에서 사업하는 우리 나라 해당 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크라스노야르스크시행정부 부국장은 해마다 시에서 조선의 도서, 사진 및 미술전람회가 진행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번 전람회는 로조외교관계설정 70돐을 계기로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보다 큰 의의를 가진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조선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앞으로 두 나라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 바란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조선

네팔인사의 글

네팔신문 《고르카 엑스프레스》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을 모시고 주체사상에 대하여 서술한 신문사 책임주필의 글을 게재하였다.

필자는 령토도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이 자기의 위용을 높이 떨칠수 있은 비결은 걸출한 수령들을 모시고 위대한 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석에 의해 창시되였으며 오늘 김정은원수께서는 모든 분야에서 그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이끄신다. 조선에서는 주체사상의 거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위대한 사상을 창시하신것으로 하여 세계 진보적인류의 걸출한 수령으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신다.

주체사상은 전세계에 급속히 전파되였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조선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혁명과 건설이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진행되고있다.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할수 없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였기에 조선은 그 어떤 제재에도 끄떡하지 않고있다.

필자는 끝으로 네팔의 혁명가들이 주체사상을 따라배워 네팔의 현실에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역적패당이 떠드는 《보수정치의 새로운 가치론》을 평함

평화번영을 향한 민족사의 흐름에서 밀려나 개밥에 도토리신세가 된 남조선의 《자유한국당》이 살구멍을 찾아보려고 《쇄신》과 《혁신》의 먼지구름을 일으키던 끝에 《보수정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라는것을 내놓고 요란히 광고해대고있다.

그 무슨 《6대혁신가치》니, 《6대핵심가치》니 하는 잡동사니들로 매닥질된 《새로운 가치론》이라는것은 아무리 눈을 비비고 살펴보아도 《새로운것》이란 꼬물만큼도 찾아볼수 없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민족화해의 시대에 부응하여 새롭게 태여나기 위한 몸부림은 전혀 보이지 않고 민심을 우롱하는 말장난뿐이다.

보수패당이 떠드는 《새로운 가치론》은 장마철의 어지러운 탁류와 같아 그 맑음에 대해 론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빈대의 코등만 한 체면도 없이 해괴한 궤변으로 여론의 환심을 사보려고 꾀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허황성과 불순한 속내에 대해 까밝혀보고저 한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보수정치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국가도덕성》을 내세웠다.

《보수의 본질은 높은 도덕성》이며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개인의 권력람용이나 자의적행사로 국가도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권력구조개혁에 앞장선다는것》이 그 골자이다.

이들이 제창하는것을 보면 보수야말로 누구보다 고상한 도덕관을 지니고 사회발전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며 지난 시기 세상을 들었다놓은 리명박, 박근혜역도가 저지른 특대형범죄행위도 철저히 개인의 부정비리와 권력횡령에 국한된것으로서 보수와는 인연이 없다는것이다.

승냥이가 자기는 날고기가 아닌 풀을 뜯어먹는다고 하는 이소프의 우화를 련상케 하는 극히 파렴치한 궤변이 아닐수 없다.

그 어느 시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도덕성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인민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하다면 한때 리명박, 박근혜와 같이 춤추던 남조선의 보수패당의 행태는 어떠하였는가.

《피땀흘려 일하면서도 〈흙수저〉로 취급받는 빌어먹을 세상에 대한 분노로,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부터 투쟁에 나섰다.》, 《엄마, 아빠가 개, 돼지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개, 돼지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불을 들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박근혜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여 초불항쟁에 일떠서면서 웨친 이 피타는 절규가 그에 대한 대답이다.

남조선인민들을 말하는 미물로 여기면서 온갖 불법무법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고 진보민주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비렬한 모략책동으로 보수《정권》을 연장하고 권력형부정부패를 일삼아온것이 다름아닌 보수의 본태이고 변할수 없는 체질이다.

쉬파리는 시궁창의 악취를 향수로 느끼고 감탕속의 미꾸라지는 감탕판을 더없는 천국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리승만역도의 《자유당》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의 《자유한국당》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와 패륜패덕의 계보를 이어오며 《썩은 당》, 《패덕당》의 악명을 떨친 보수패당이 별안간 《도덕성》이라는 면사포를 쓴다고 하여 썩은 몸통에서 나는 구린내를 감출수 있겠는가.

지금 보수패거리들이 그 무슨 《정의로운 보수》니, 《혁신》이니 하고 너스레를 떨고있지만 이자들은 속으로 보수《정권》에 칠추를 내린 민심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고있는 악마들이며 파쑈독재부활에 명줄을 걸고있는 극악한 파쑈광들이다.

결국 이자들이 떠드는 보수의 《도덕성》타령은 창녀의 절개자랑과 다를바가 없는 개나발인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튼튼한 안보》니, 《당당한 평화》니 하는것도 《보수정치의 새로운 가치》라고 광고하고있다.

력대 보수패당이 《안보정당》으로 자처하며 그 어느때나 칠팔월 개구리보다 더 소란하게 떠들어댄것이 《북위협설》, 《전쟁위기설》이다.

전쟁의 먹구름이 떠도는 음침한 환경을 보수가 살아갈 최적의 생태조건으로 삼는 역적무리들은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공동선언들의 채택으로 밝아오는 평화의 세상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막아보려고 《안보》타령을 불어대고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채택발표된데 대해 지상, 공중, 해상을 모두 내준 합의이다, 스스로 안보를 무장해제했다, 《한미동맹》에 균렬이 갔다, 국민들이 참말로 잘되였다고 생각하는데 걱정이 여간 크지 않다고 고아대며 《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서검증특별위원회》라는것까지 조작해내는 광대놀음을 벌렸다.

전쟁이 없는 조선반도는 적대와 대결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보수패당에게 있어서 서식지의 상실과 《안보장사》의 끝장을 의미한다.

하기에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평화적환경을 구축하자는것을 죽도록 싫어하는 보수패당이 떠드는 《튼튼한 안보》, 《당당한 평화》란 결국 동족대결과 전쟁위기로 저들의 더러운 명줄을 이어가자는것외 다름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낯간지럽게 설파하는 《따뜻한 사회》와 《준비된 미래》라는것도 민심을 우롱하는 요설에 불과하다.

보수의 품이 그렇게 따뜻해서 《세월》호의 무고한 어린 생명들이 바다속에 수장되여 생죽음을 당했고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참혹하게 쓰러졌는가.

보수가 만든 사회가 그렇게 아름다워서 정의와 진리를 주장하는 광범한 인민대중이 각종 살생부에 올라 인권과 자유를 무참히 짓밟혔고 남조선이 자살순위 세계 제1위를 기록하였는가.

보수가 내흔드는 《따뜻한 사회》란 민중을 지렁이처럼 여기며 각종 요시찰명단같은것들을 조작하여 탄압하고 민주민권을 깡그리 말살하는 지옥사회이며 《준비된 미래》란 가진자가 더 잘살고 못 가진자는 더욱 빈궁속에 몰아넣기 위한 제2, 제3의 리명박, 박근혜《정권》의 부활이다.

력사와 민심의 사형선고를 받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권력의 자리에 다시 게바라올라가 《피의 복수》를 하겠다는것이 보수패당의 검은 속통에 꽉 차있는 앙심이다.

이러한 불순한 기도를 실현해보려고 역적패당은 속에 없는 《새 가치론》을 내들고 민심을 낚으려 하고있고 개혁의 발목을 잡으며 남조선사회발전에 제동을 걸고있다.

독사는 열백번 허울을 벗어도 독사인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혁신가치》를 떠들어대도 그 추악한 본색은 절대로 달리 될수 없다.

지금 남조선각계는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도도한 흐름에 눈귀를 틀어막고 파거의 암흑속에서 꿈틀대는 보수무리들을 놓고 《우물안에 앉아 리념의 색안경을 끼고 변화를 거부하는것들》, 《상전벽해처럼 달라진 세상에 비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수구보수세력》이라고 침을 뱉고있다.

격류하는 대세에 역행하는자들은 력사의 파도에 삼키워 멸망하는 길밖에 다른 운명이 차례질것이 없다.

남조선 각계층은 력사의 흐름을 암흑의 파거에로 되돌리려고 발악하는 보수패당의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보수적패청산의 불길드높이 자주와 평화, 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안아와야 할것이다.

김 연 이

효력정지되여야 할것은 반역당의 대결정책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장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지난 2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반통일적망동을 단죄규탄하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자유한국당》이 《9월평양공동선언》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와 관련하여 그 무슨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떠든데 대해 폭로하면서 반역패당이 판문점선언의 《국회》통과를 리유없이 방해해온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무슨 《절차상의 문제》를 거들며 《9월평양공동선언》까지 걸고들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단체는 《자유한국당》이 《9월평양공동선언》을 헐뜯고있는것은 스스로 저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발전을 원치 않는 세력임을 립증한것이라고 하면서 효력이 정지되여야 할것은 이 반역당의 낡은 대결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계속하여 단체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발전을 한날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반통일적인 망동은 당장 중지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북남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역행하는 대결정책을 걷어치우고 《국회》에서 판문점선언비준동의안부터 통과시키는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 효력정지》라는 표어를 이 반역당패거리들의 사진에 붙이면서 기세를 올리였다.

본사기자

민주로총 총파업투쟁을 선언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가 전한데 의하면 민주로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청산과 로동자의 권리보장, 사회대개혁을 위한 11월총파업돌입을 선언하였다. 민주로총은 초불의 요구이고 로동자들의 희망인 사회변화가 지체되거나 심지어 퇴행하고있는 속에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등 수구보수세력의 공세가 악랄해지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단체는 적폐청산, 로동자의 권리보장, 사회대개혁을 위해 총파업대회를 개최할것이라고 밝혔다.

《자주시보》는 민주로총의 총파업투쟁은 이미 시작되였다고 하면서 지역별총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 년금개혁사회안전망쟁취 결의대회, 건설산업련맹, 학교비정규직로동자들의 총력투쟁 등이 예정되여있다고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로씨야대통령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여야 한다고 언명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최근 한 의식에서 온갖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올해부터 실현되고있는 새로운 국가무장장비계획의 범위안에서 륙해군의 현대화가 계속될것이라고 하면서 많은 새형의 무기들이 곧 계렬생산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군대의 작전 및 전투훈련수준을 높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리아에서의 군사작전경험과 잠재적위협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보다 복잡다단한 과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또한 올해 군대안에 군사정치기관들이 창설된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이 기관들의 목적은 젊은 군인들을 애국주의와 군사적의무에 대한 성실성, 조국을 위한 책임감으로 교양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란 아프가니스탄문제의

화근은 미국이라고 주장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최근 미국을 아프가니스탄문제의 화근으로 락인하였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주둔은 이 나라에서의 끊임없는 분쟁과 내전의 근원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간섭으로 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호전되지 못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문제는 미국이 지역의 안정파괴를 추구하고있는데 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범죄반대투쟁

케니아의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 죠모 케니아타국제비행장에서 22일 사자와 혹멧돼지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이발과 발톱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제품을 밀수하려던 범죄자가 체포되였다.

이에 앞서 21일 먀마경찰은 라킨주에서 마약밀수행위를 적발하여 288만 6 000알의 각성제를 압수하고 4명의 밀수업자를 억류하였다.

한편 남아프리카의 크루가국립공원에서 22일 야생동물밀렵행위를 일삼던 8명의 범죄자가 체포되고 사냥도구들이 압수되였다.

자본주의사회의 이모저모

폭력행위 증가

일본의 학교들에서 폭력행위가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25일 이 나라의 문부과학성이 밝힌데 의하면 올해 3월말에 끝난 2017학년도에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들에서 약 41만 4 380건의 폭력행위가 감행되였다. 이것은 그 전학년도에 비해 9만여건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파업

뽀르뚜갈의 전국도처에서 26일 생존권보장을 위한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파업이 벌어졌다.

파업참가자들은 다음해 국가예산안에 근로자들의 생활형편을 개선시키기 위한 대책적문제가 담겨져있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파업으로 학교와 병원을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아 물의가 빚어졌다.

실업자 증대

프랑스에서 3.4분기에 실업자수가 그 전분기에 비해 대폭 늘어나 346만명에 이르렀다. 25일 이 나라 로동성이 밝혔다.

각종 범죄

에스빠냐의 말라가시교외에서 24일 마약을 숨겨둔 창고가 적발되여 6 000kg이상의 코카인이 압수되고 15명의 범죄자가 체포되였다.

최근 벌가리아의 동부해안지역에서도 화폐위조를 전문으로 하던 범죄소굴이 드러나 1 440만US$어치의 위조화폐가 몰수되고 4명의 범죄자가 억류되였다.

한편 미국 펜실바니아주의 피쯔버그시에서 27일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40대의 남성이 한 교회당에 뛰여들어 마구 총질을 하여 11명이 죽고 6명이 부상당하였다.

어린이학대행위

마께도니아에서 어린이학대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7일 이 나라 대중보도수단이 전한데 의하면 상반년에 약 70명의 어린이가 부모나 친척들로부터 갖은 학대를 받았다.

지난해에도 이러한 어린이들의 수는 그 이전시기에 비해 늘어났다고 한다.

이스라엘군의 살인만행

이스라엘군이 26일 가자지대에서 시위를 벌리던 팔레스티나인들에게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여 4명을 살해하고 23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날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라말라호시교외에서도 이스라엘군이 쏜 총탄에 맞아 팔레스티나인 1명이 죽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라인강수위 최저수준

도이췰란드에서 올해 여름철에 가물이 지속되여 라인강수위가 최저수준에 이르렀다. 26일 이 나라 경제 및 에네르기성이 밝힌데 의하면 쾰른시에서 평균수위가 3.21m인 라인강의 물높이가 22일현재 70㎝로 낮아졌다. 그로 하여 짐배들의 화물수송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고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월간국제정세개관

평온하지 못한 세계

세계는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 또 한달을 보냈다.

이달은 나라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의 련속으로 흘러갔다.

무역분야에서 서로의 힘겨루기로 중미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였다. 최근 미국은 중국산제품의 관세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립장을 밝혔다.

중국도 쉽사리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중국의 한 고위인물은 미국투자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국이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역전쟁을 불씨로 한 중미모순은 다른 분야에로 확대되였다. 지난 4일 미국부대통령 펜스는 중국이 2020년의 미국대통령선거를 내다보고 11월에 진행되는 국회중간선거준비기간 미국사회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례없는 사업에 착수하였다고 하면서 《중국은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리익을 챙기기 위해 정부급의 대책을 취하고있다. 미국의 국내정책들과 정치에 간섭하기 위해 보다 주도적이고 강압적인 방식들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자국이 미국의 내정과 선거에 간섭하고있다고 모독한 미국부대통령의 연설을 터무니없는 날조로 락인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자기 나라는 여직껏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하여왔으며 미국의 내정과 선거에 간섭하는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도대체 누가 걸핏하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다른 나라의 리익에 손해를 주는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오래전부터 잘 알고있다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그 어떤 악랄한 비방중상도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한 싸이버안전회사가 지난 반년동안 중국이 싸이버를 통한 상업비밀절취를 강화하였으며 이미 서방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지원하는 가장 큰 나라로 되였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을 때에도 강하게 반발하여 나섰다. 지난 12일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정보기관 요원이였던 스노우덴 등이 폭로한 자료들을 통해 어느 나라가 오랜기간 외국의 정부와 기업, 개인에 대한 대규모적인 감시를 진행하고있으며 또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싸이버공격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국제사회는 똑똑히 알고있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영상에 먹칠하지 말며 중미관계를 해치는 언행을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달에 로미사이의 모순과 대립도 국제사회계의 주목을 끌었다. 지난 20일 미행정부는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폐조약에서 탈퇴할 의사를 내비치였다.

이 조약은 이전 쏘련과 미국이 1987년에 체결한 군비통제 및 군축조약이다. 국제적으로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폐조약을 유지하는것이 오늘도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인식이 강하다.

미국은 조약탈퇴리유로 로씨야가 다년간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는것을 내들었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미국은 로씨야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폐조약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들자신이 솔선 이 조약을 위반하였다고 반박하였다.

여론들은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폐조약탈퇴의 책임을 로씨야에 넘겨씌우려 하고있다, 미국의 조약탈퇴의사가 이 조약에 의해 금지된 무기들을 최단기간내에 빨리 만들기 위한 잠재력을 확보하고있는 상태에서 나온것은 바로 저들의 무기개발의 합법적명분을 마련하기 위한데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전하고있다.

이달에 일본반동들은 해외팽창의 더러운 꿈을 실현해보려는 망동을 부리였다.

수상 아베는 지난 14일에 진행된 《자위대》사열식에서 《모든 자위대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임무를 완수할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것은 현시대 정치가들의 책임이다.》고 말함으로써 개악을 통하여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려는 속심을 다시금 드러내보이였다. 그런가 하면 지난 18일 70명의 일본 초당파국회의원들이 도꾜에 있는 야스구니진쟈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군국주의망령을 부르는 추태를 부렸다.

분석가들은 일본이 결코 평화를 바라지 않으며 명백히 아시아를 메주밟듯 하던 제국시대를 꿈꾸며 침략의 길로 나가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이달에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의 대립이 더욱 첨예화되였다. 지난 5일 가자지대와의 경계지역에서 약 2만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이 이스라엘의 령토강탈책동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렸다. 이스라엘군은 시위에 떨쳐나선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사격을 가하여 3명을 죽이고 376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12일에도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들이 시위를 벌렸다. 시위에는 약 1만 5 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이스라엘군의 야수적인 탄압으로 시위자들속에서 7명의 사망자와 2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10월의 국제정세흐름은 세계가 결코 평온치 않으며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본사기자 림 원

ㄱ-181172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